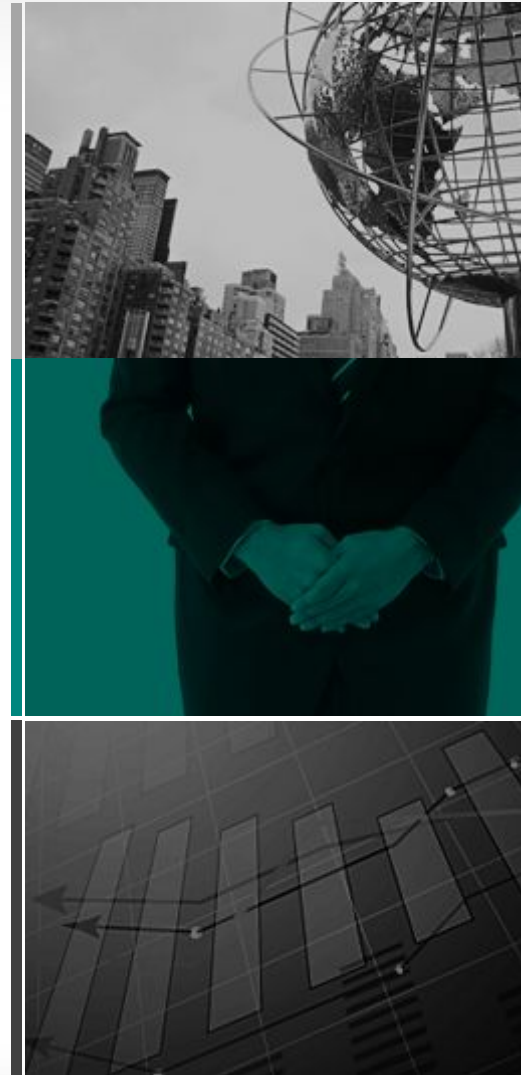

노동패널을 활용한 가계 자산 구성 변화 점검과 시사점

2015년 6월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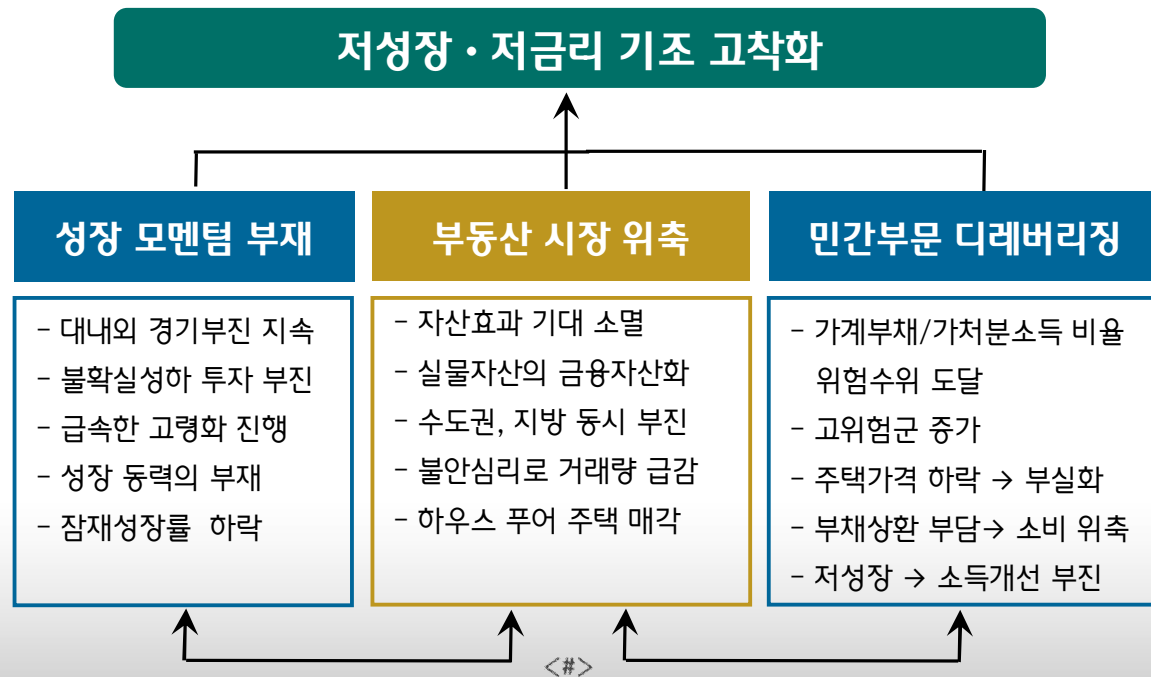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저성장 환경 지속으로 자금수요 감소하며 저금리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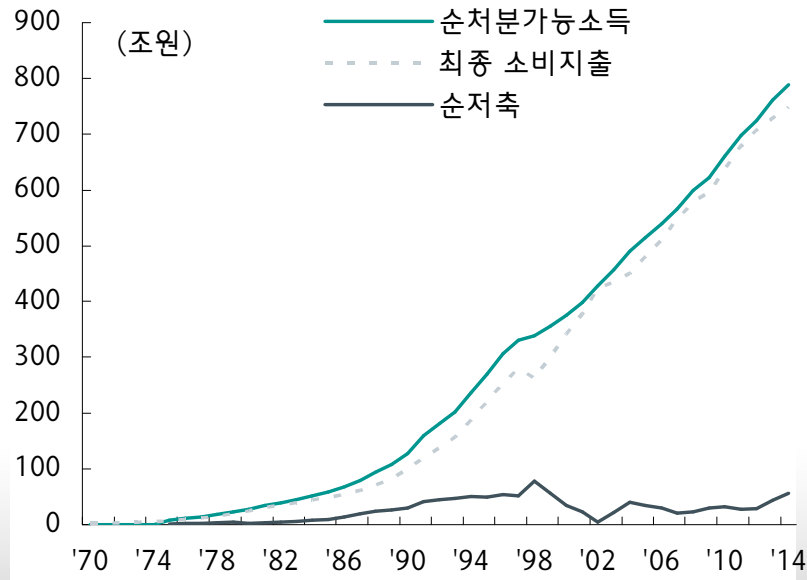
- 국내 금리도 '00년 이후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 진입
 - 경제성장률 하락, 신흥국들의 과잉생산, 글로벌 자본이동 확대 등으로 선진국 지표국채 금리는 10~11%(80년대) → 6~7%(90년대) → 3~4%(00년대)로 기조적 하락세 시현
- 또한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외 금리차 축소 압력,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연기금 성장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구조적인 저금리 시대 진입
 -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에 따른 유연한 정책금리 조정으로 실질금리는 0% 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특히, 노동공급 둔화, 요소생산성 증가율 정체, 유흥자본 증가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 등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효 수요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물가 수준 지속
 - 90년대 5.7% → 00~05년 3.2% → 06~09년 3.1% → 10~14년 2.4%



저축률 하락과 더불어 가계 금융자산 증가 속도 둔화

- 국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는 점차 둔화
 - 연평균 증가율(%): 16.8(80년대) → 12.9(90년대) → 5.7(00년대) → 4.9(10년 이후)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부양인구비율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가중 등에 따라 가계의 저축여력 약화
- 또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가계의 차입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가계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저축동기가 약화된 영향
 - 외환위기 이후 카드사태 발발 이전까지는 순저축률이 1.0%까지 하락한 이후 5% 내외에서 등락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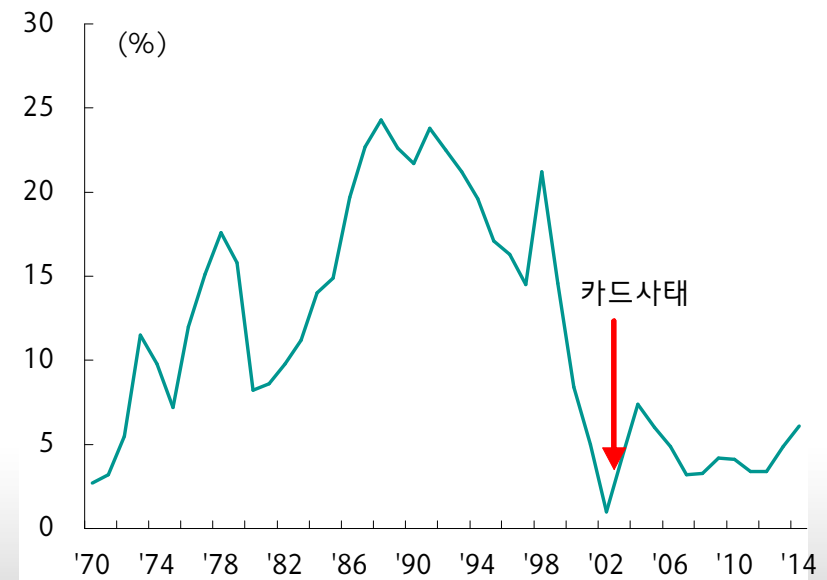
국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소득, 지출, 저축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순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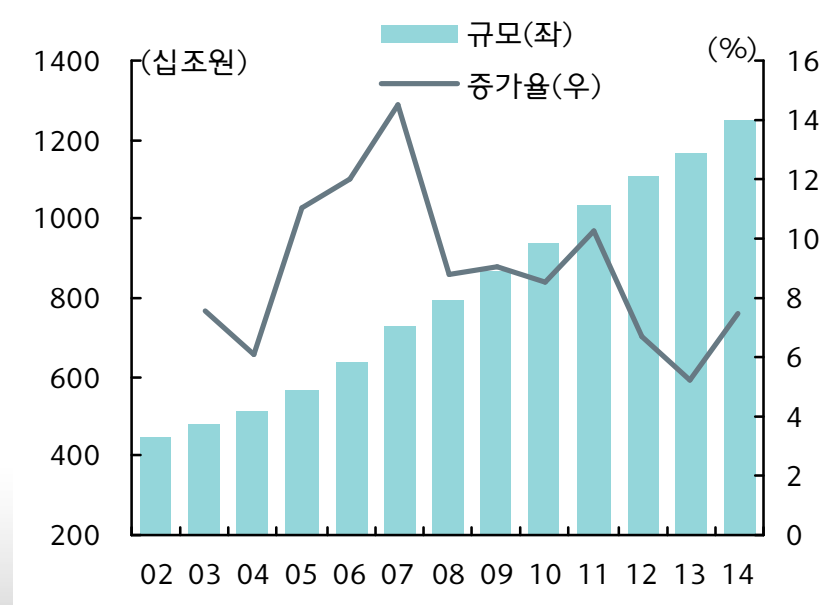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성장을 둔화와 더불어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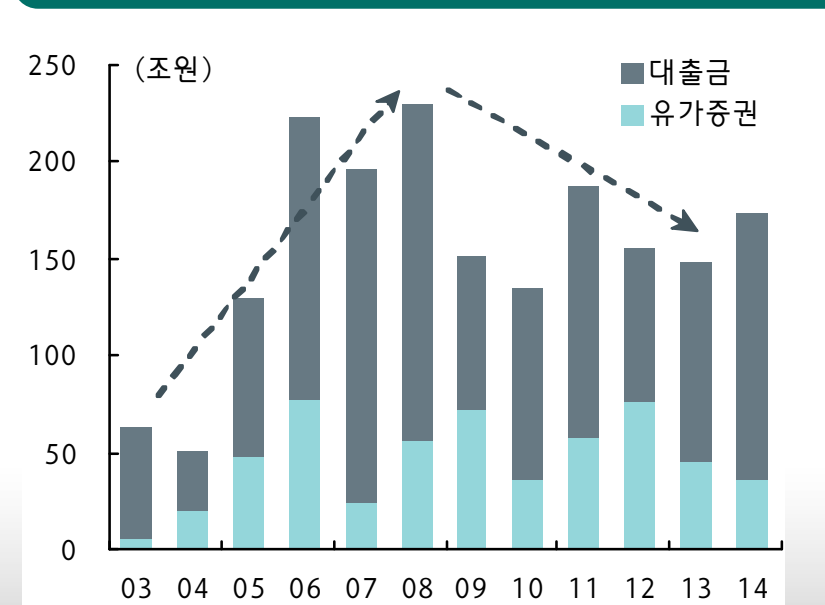
- 국내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경제 전반의 금융자산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
 - 국내 총 금융자산은 1경 2,248조원으로 자금순환표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13년 기준)
 - ※ 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 연평균) : 10.0('03~'08년) → 8.0('09~'13년) → 7.4('14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의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자금중개 규모(대출금+유가증권) 추이(조원): 187('11년) → 156('12년) → 148('13년) → 174('14년)

국내 금융자산 증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법인의 비금융부문 자금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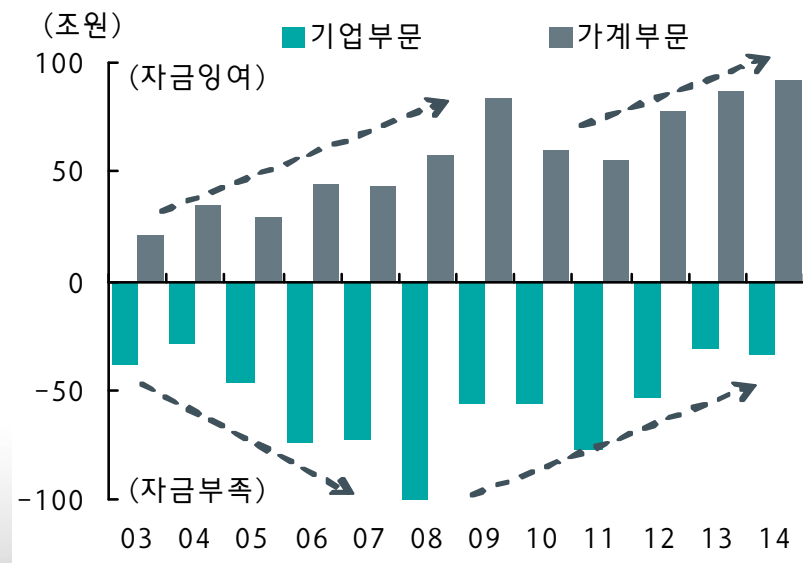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금융권의 자금증개 기능 약화는 금융산업 전반의 위기를 암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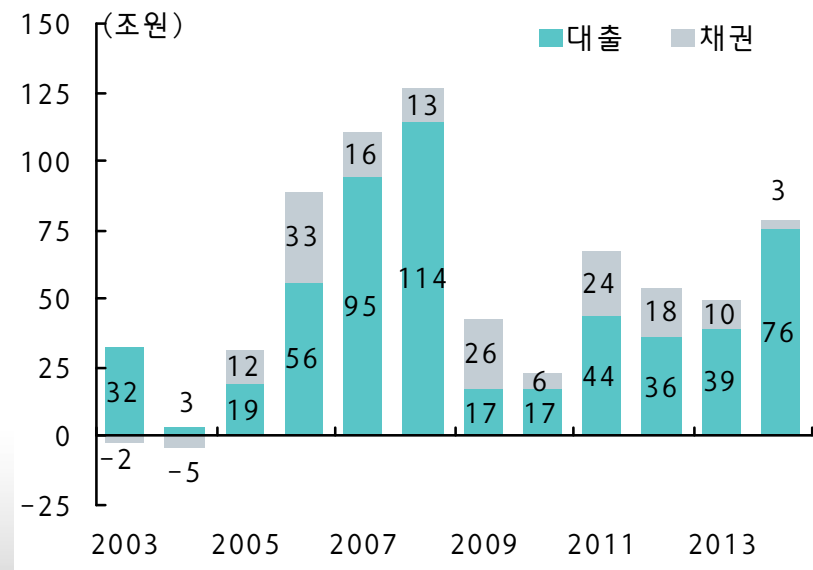
-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상황은 비금융법인의 경우 자금부족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 국외부문은 경상수지 흑자로 증가
 - 기업부문은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11년 77조원에서 '14년 33조원으로 감소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은 자금잉여 규모 확대가, 기업부문은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세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투자부진이 이어지며 자금조달 및 부족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
 - 가계/기업 자금과부족 추이(조원) : 77/-54('12년) → 87/-32('13년) → 92/-33('14년)
- 반면 가계부문(비영리단체 포함)은 경기부진 장기화, 노후 대비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며 가계부문의 자금잉여 규모가 꾸준히 증가, 반면 일반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둔화로 잉여 규모가 감소
 - 가계 자금잉여(연평균, 조원): 38(03~08)→ 84(09)→ 60(10)→ 55(11)→ 77(12)→ 87(13)→ 92(14)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자금과부족 장기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민간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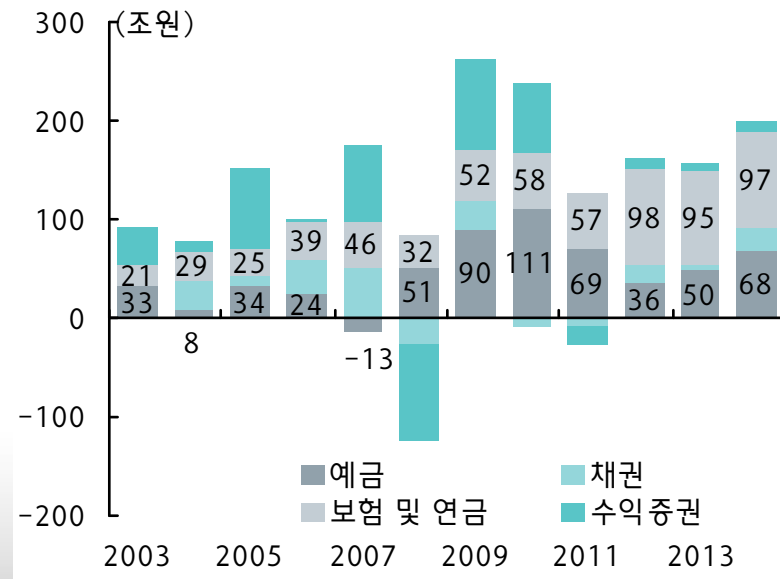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문 자금잉여 확대 하에 자산선택의 중요성 본격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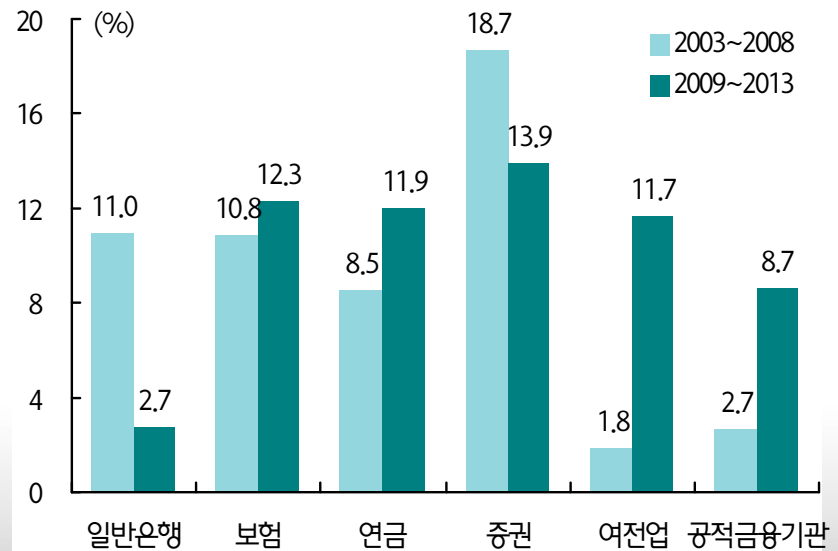
- 가계부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주식시장 부진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진 반면,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로 자금운용이 단기화되며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의 자금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
 -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 증감(조원): 30.6('10년) → 12.7('11년) → 15.2('12년) → 31.8('13년) → 51.1('14년)
- 반면 장기저축성예금 증가 규모가 급격하게 둔화되다 2013년의 경우에는 잔액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는 장단기금리차 축소 및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메리트 축소와 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에 기인
 - 장기저축성 예금 증감 추이(조원): 69.2('10년) → 47.6('11년) → 3.2('12년) → 5.5('13년) → 6.1('14년)
- 보험 및 연금상품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준이 지속된 반면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은 환매 수요가 지속되며 감소세 지속
 - 보험 및 연금 증감 추이(조원) : 58.1('10년) → 56.7('11년) → 97.5('12년) → 95.3('13년) → 97.2('14년)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증감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업권별 연평균 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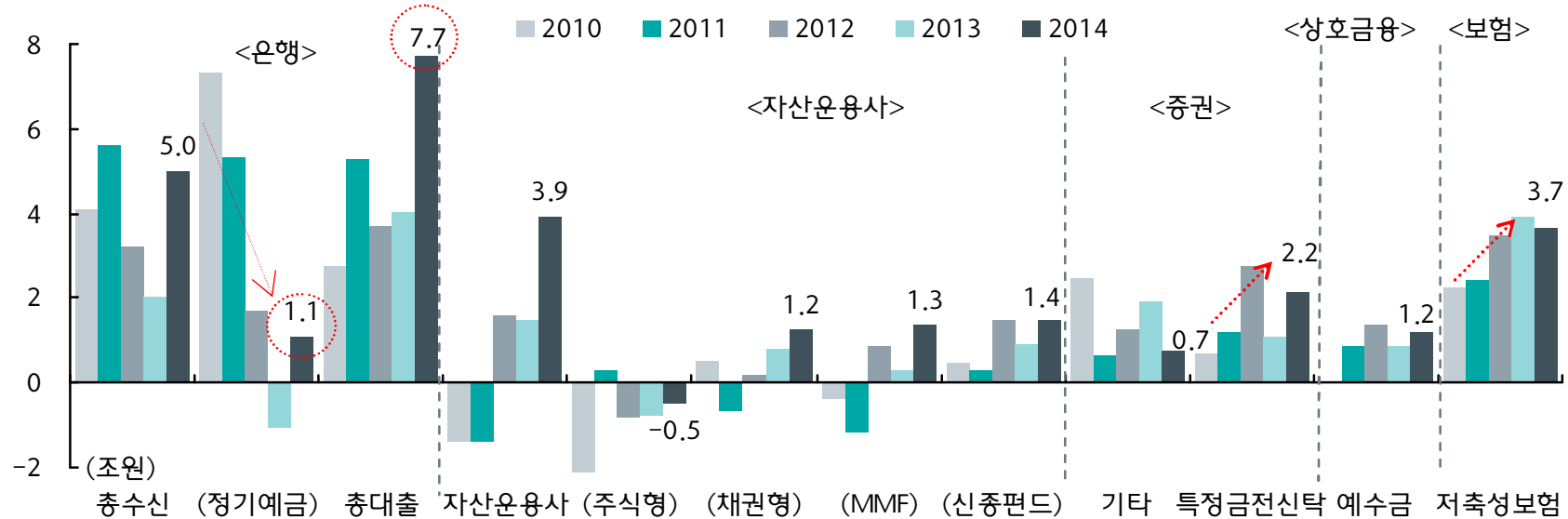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 지속은 가계부문의 수익률 민감도 증대를 초래

-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가계부문의 수익률 추구를 현상이 강화되며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모습이 뚜렷
 - 저축보다는 투자가 강조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흐름이 상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강조
- 또한 금융권별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업권별 자금이동이 가속화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약화
 - 신규 상품의 도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기존 금융상품으로 자금 이탈을 촉발시키는 등 금융권간 자금이동을 확대시키며 금융권역 간 수신 경쟁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

주요 금융상품 수신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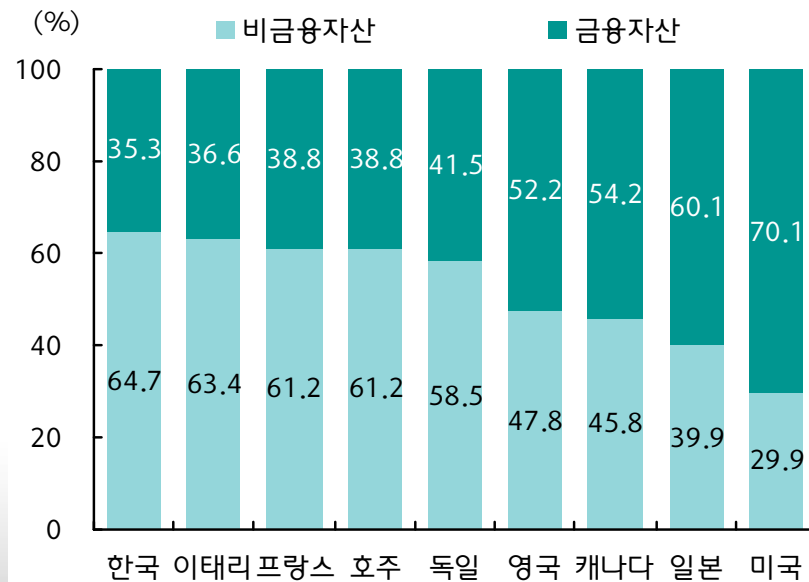


주 : 1) 기간 중 월평균 증감 2) 은행 총 수신은 은행채 제외, 저축성보험은 생보사 수입보험료, 증권 기타는 RP+CMA+랩어카운트 기준 3) 저축성보험은 '14.11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주택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투자자산 다변화 욕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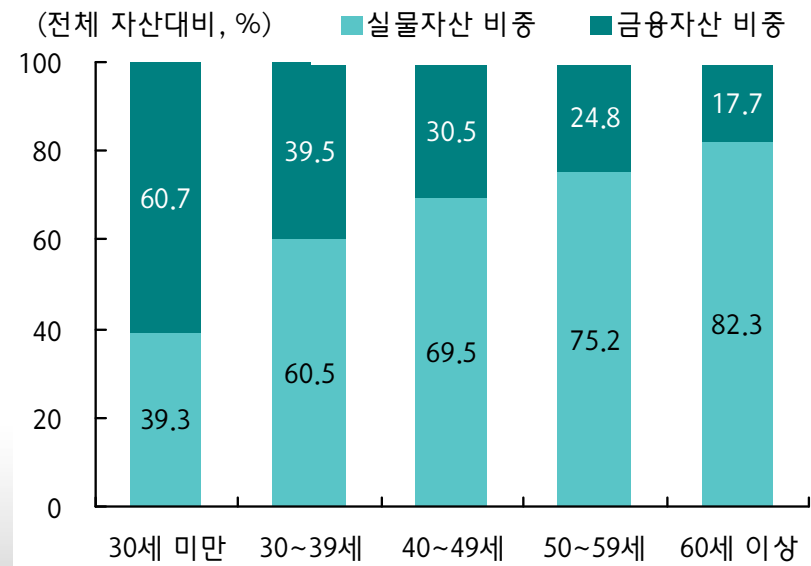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 변화 진행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며 시중 자금의 금리 민감도가 증대되며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상의 비중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
 -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규모 역시 1인당 GDP와 금융연관비율(전체 금융자산/GDP) 간의 관계 고려시 명목 GDP 증가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
- 가계소득 및 잉여자금 증가로 투자여력이 확대되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고 현금·예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
 - 국내 가계, 금융자산중 예적금 비중이 50%대에 달해 유럽(30%)과 미국(10%) 대비 매우 높은 수준

가계자산 국제 비교(총자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연령대별 실물자산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행태조사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해외투자 비중 확대 추구

- 가구주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 부동산 비중은 은퇴 전후로 정점을 기록하고 노후로 갈수록 점진적 하락세를 보임
 - 동 시기를 기점으로 주택규모를 줄이고 잔여금을 활용한 금융자산 구입과 근로소득을 통해 현금흐름 창출 추정
- 또한 베이비붐 세대 및 노령층의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 감안시 주택대출 부담, 금융자산 및 연금자산의 부족 등과 맞물리며 노후에 소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 직면
 - 은퇴세대 중심의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진전은 중대형 주택 중심의 수요 둔화 및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결국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대 확산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배분 선호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가계 자산포트폴리오내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촉진
 - 전세입자 자가전환율 추이(%) : 53.0('05) → 37.8('08) → 26.1('10) → 23.2('12)
-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며 정기예금 등 저축형상품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은퇴 이후를 고려한 재산형성 및 연금확보를 위한 적립식 장기투자상품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전망
 - 금융겸업화 확산 및 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판매채널 다양화 및 투자자 교육강화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주택시장내 구조 변화, 기업실적의 양극화, 고령화 진전과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국내자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며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
-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으로 금융규제 및 세제개혁이 국제 기준에 수렴하면서 국경 간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확대로 국내자산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유입 확대와 더불어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자산 투자가 확대
 - 일본과 대만 가계의 경우, 저금리 환경 지속 및 국내 투자처 부재 등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 국민대차대조표

-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말 국민순자산은 1경 63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1377.5조원)의 7.7배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호주 5.9배, 캐나다 3.5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
 - 국내 토지자산 가액이 전체 비금융자산의 52.2%, GDP 대비 4.1배를 기록하는 반면 일본·프랑스·호주 2.4~2.8배, 캐나다 1.3배, 네덜란드 1.6배 수준과 비교시 실물자산의 비중이 과다한 데 기인
- 특히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6%(순금융자산 기준 78%)로 미국 30%, 일본 40% 등에 비해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 →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본격 부각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대두될 수 밖에 상황
- 금융자산 대비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가계부문의 유동성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은퇴세대 등을 중심으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긴요한 상황

자산 종류별 대GDP 비율 및 증가액

	對 GDP비율(배)				연평균 증가액(조원)		
	1995	2000	2005	2013	95~00	01~05	06~13
금융자산	-	5.88	6.18	7.75	-	399.1(8.2)	512.9(9.4)
순금융자산	-	-0.10	-0.16	-0.03	-	-24.1(38.0)	-21.6(-4.8)
비금융자산	6.52	5.97	6.77	7.75	199.1(6.4)	488.1(10.5)	605.9(7.5)
건설자산	1.70	1.99	2.32	2.76	108.2(12.9)	174.1(11.1)	225.8(8.0)
설비자산	0.53	0.56	0.45	0.45	26.2(10.6)	12.5(3.3)	29.1(11.9)
지식재산생산물	0.09	0.12	0.15	0.19	7.6(16.3)	11.7(11.9)	17.2(9.2)
토지	3.89	3.08	3.64	4.09	57.0(3.5)	278.6(11.4)	312.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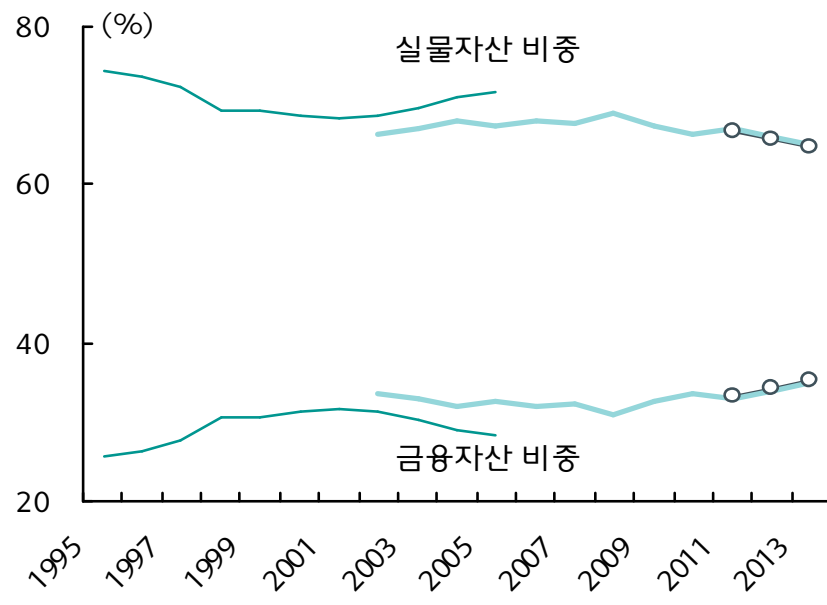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 국민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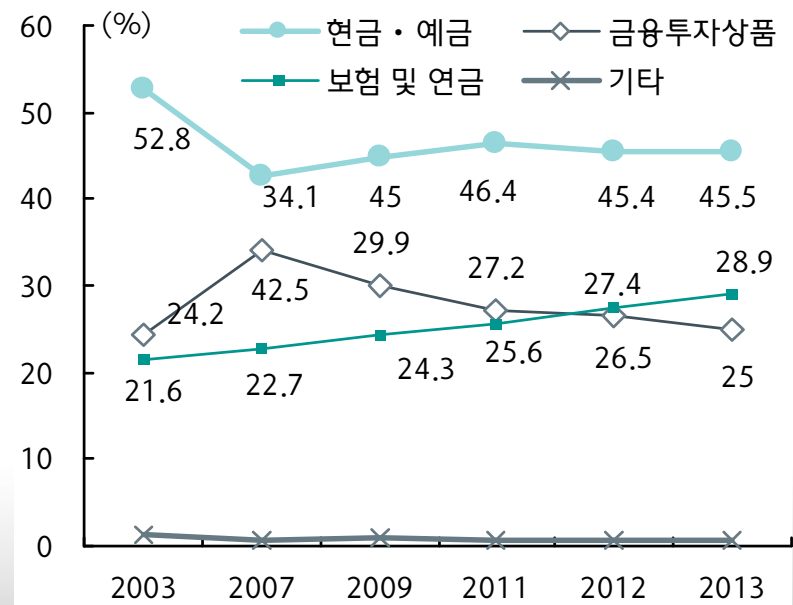
- 국내 가계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2013년 국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6,366조원 중 비금융자산은 4,912조원(77.2%), 금융자산은 2,674원(22.8%), 금융부채는 1,220조원으로 추정
- 보험 및 금융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현·예금 비중은 정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감소 추세를 기록
 - 보험 및 연금자산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주택시장 환경 변화 등의 영향에 기인

국내 가계 자산구성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내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중 추이



<#>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 자금순환표

- 2014년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5%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지속
 -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2,886조원 중 보험 및 연금은 910조원
 - 2012년 OECD 통계 기준, 생명보험과 연금 잔액의 비율은 각각 20.6%와 2.1%
- 금융위기 이후, 국내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가계 금융자산 구성이 유동화, 안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
- 가계 금융자산의 변화가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가계의 자산 선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 특히,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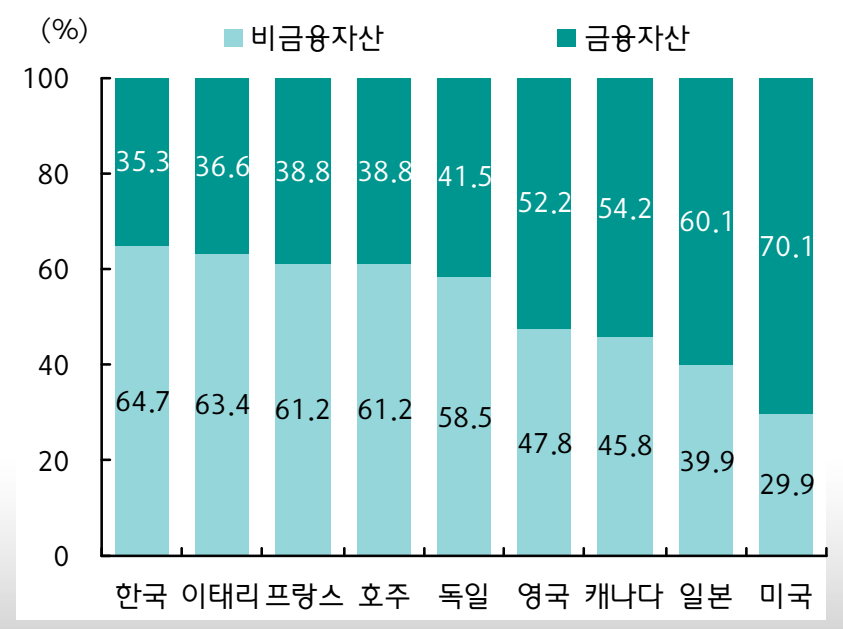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금통화 및 예금	790,930	883,578	986,756	1,042,608	1,080,971	1,137,065	1,213,373
	46.60%	45.01%	45.10%	44.37%	43.04%	42.52%	42.05%
보험 및 연금	424,176	476,596	534,711	619,665	717,133	812,443	909,611
	24.99%	24.28%	24.44%	26.37%	28.55%	30.38%	31.52%
채권	192,414	220,095	212,589	137,771	155,081	158,634	183,445
	11.34%	11.21%	9.72%	5.86%	6.17%	5.93%	6.36%
주식	282,342	375,459	445,989	532,283	540,846	547,420	556,943
	16.64%	19.13%	20.38%	22.65%	21.53%	20.47%	19.30%
기타 금융자산	7,312	7,382	7,846	17,299	17,485	18,427	22,424
	0.43%	0.38%	0.36%	0.74%	0.70%	0.69%	0.78%
합계	1,697,175	1,963,108	2,187,892<#>	2,349,626	2,511,516	2,673,989	2,885,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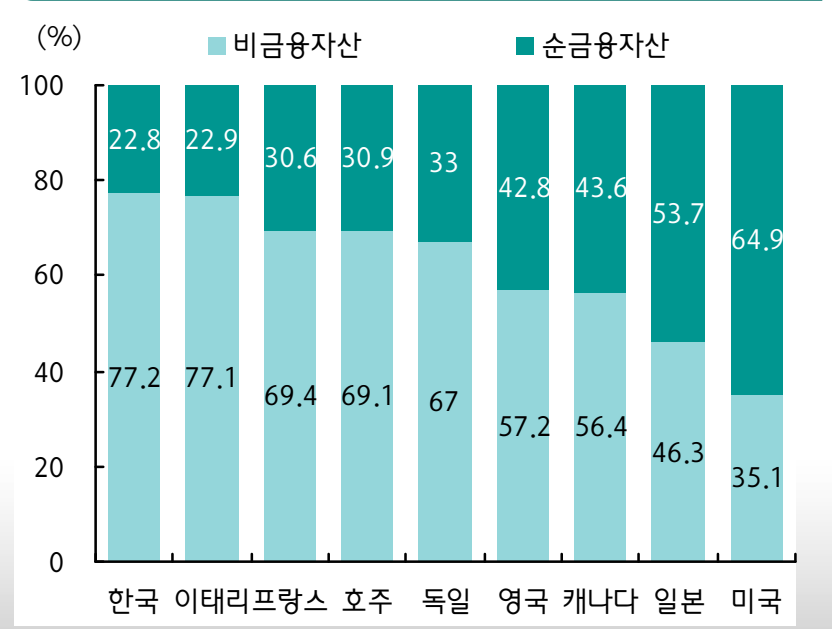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가계자산, 금융자산 전환 시급

- 국내 가계자산 구성은 부동산 편중,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자산 보유 구조
 - 이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제약이 심화, 위험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
 - 또한 자산 형성기에 보험상품에 대한 지출 확대로 투자형 상품을 활용한 금융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7%로 미국 29.9%, 일본 39.9%에 비해 과도한 수준
 -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한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7.2% 까지 상승
 - 가계자산 내 금융자산 비중 확대는 금융자산 형성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의 가치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 총자산 기준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 순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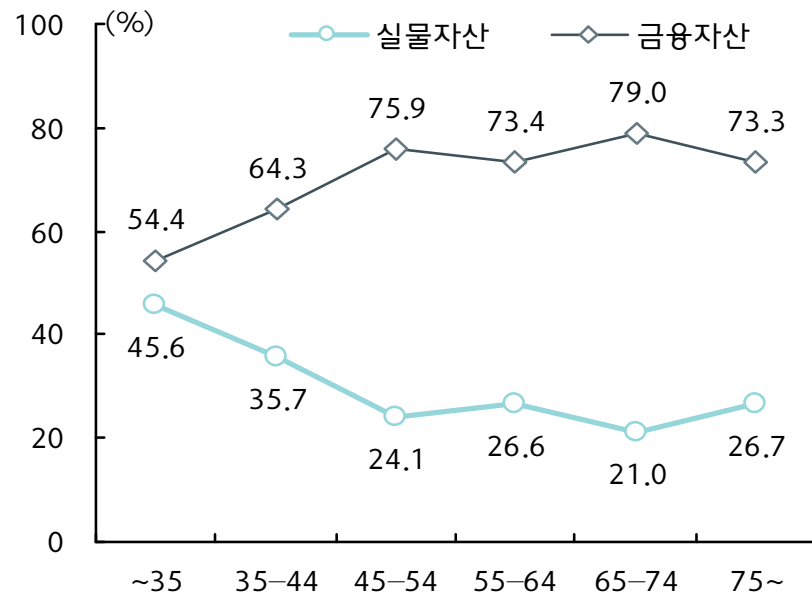
자료 : OECD

<#>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와 더불어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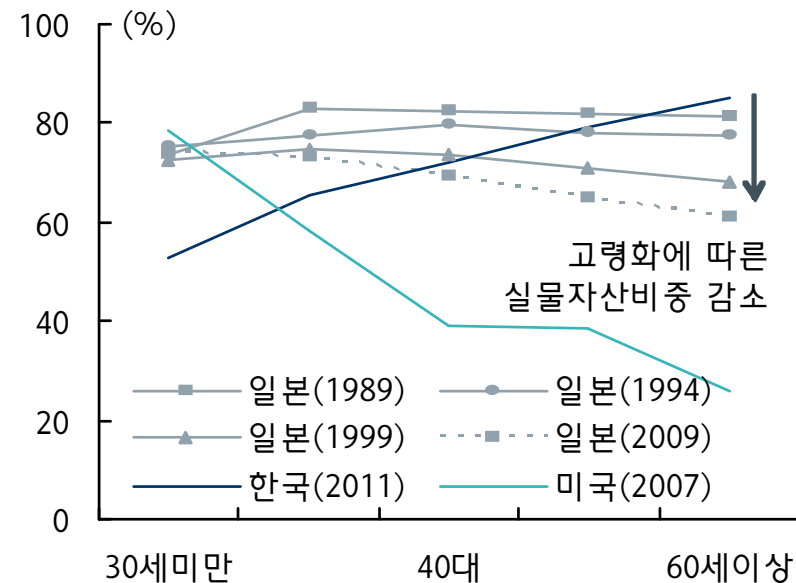
- 생애주기가설 고려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
 - 가계 금융자산 선택에 가장 큰 변수는 주택에 대한 투자 → 주택소유 이전까지는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에 주력하나, 주택 구입 이후에는 부채 상환과 더불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 실물자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 한편 일본과 같이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총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실물자산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 발생
 - '94~'03년의 기간 동안 일본 가계의 실물자산 규모는 31.7%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도시지역 부동산지수 하락률은 59.7%(6대 도시 61.2%) 수준
 - ※ 일본 가계자산 구성비(총자산 기준, 실물자산/금융자산) : 94년 56.1%/ 43.9% → 13년 39.9%/ 60.1%

미국 가계 연령대별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자료 : FRB

주요국 세대별 실물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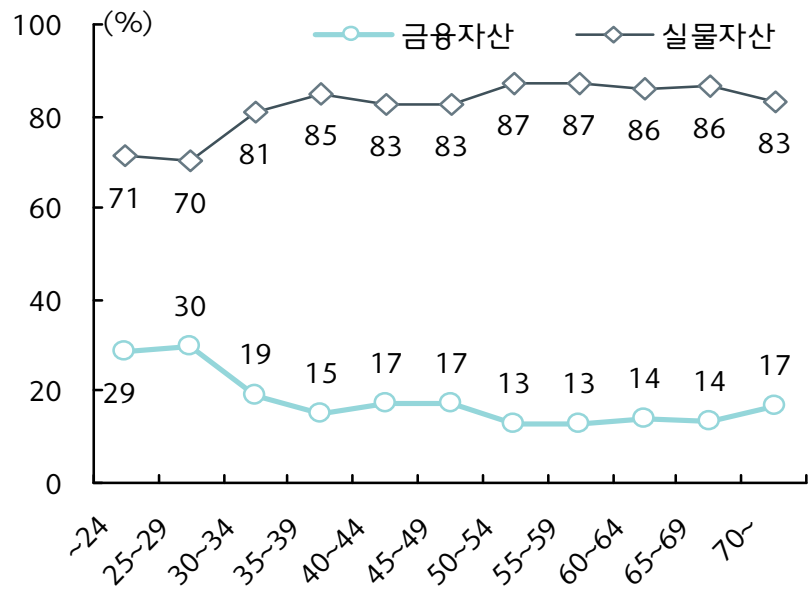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국내는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기형적 구조

- 국내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순자산 기준)
 -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높은 주거 비용과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반한 과거 투기적 수요가 주요인으로 작용
 - 또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택구입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고령층의 실물자산 비중 과다의 원인
- 또한 주요국 대비 가계 금융자산 내 현·예금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주식과 펀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중심으로 저축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금 시장 제도 정착 지연 등으로 사적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약
 - 생명보험/사적연금 비중(% , 2012년) : 한국 20.6/2.1, 미국 2.0/30.5, 일본 14.1/13.0, OECD 평균 12.2/16.3

국내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201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

국가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현금·예금	45.5	12.7	53.1	27.8	22.0
금융투자상품	25.0	53.3	16.1	12.5	17.2
보험·연금	28.9	31.3	26.7	56.3	57.7
기타	0.7	2.7	4.1	3.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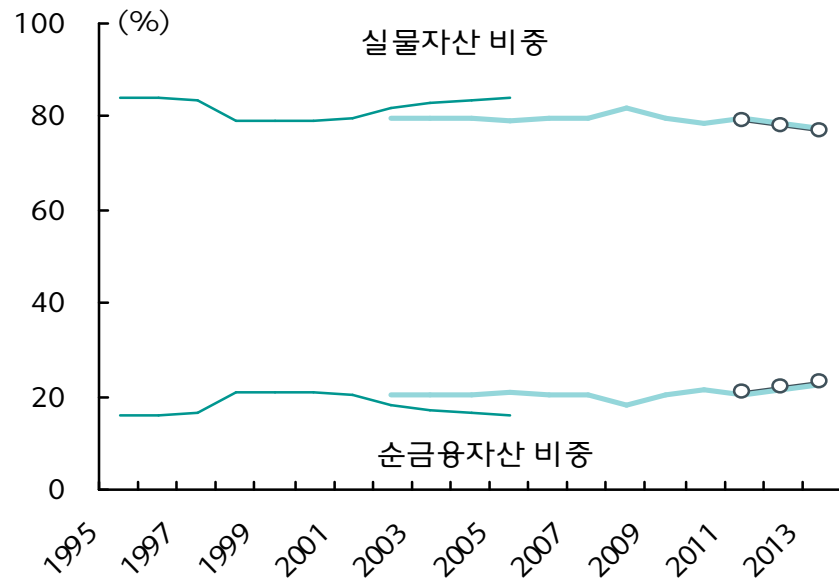
주 :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제외
 자료 : 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금융자산 내 안전자산 비중 증가세 뚜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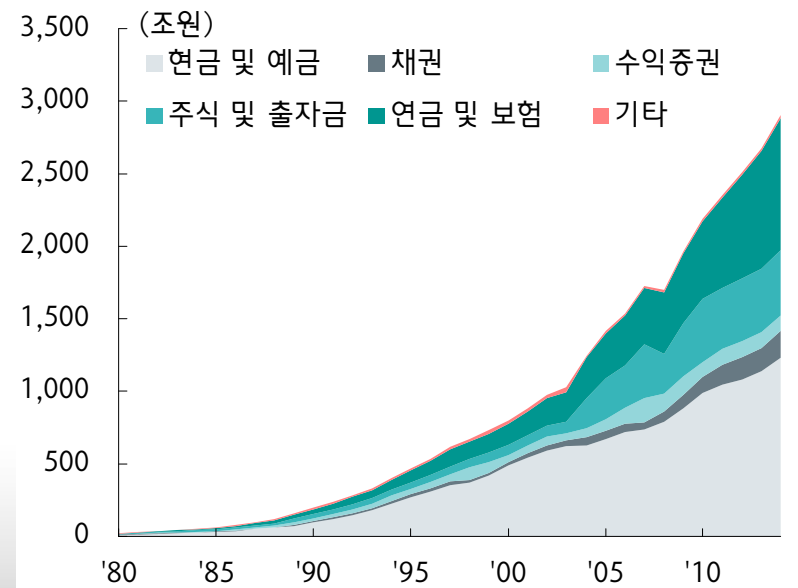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이 약 80%대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자산 내 금융자산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
 -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계 자산 규모는 7,585조원, 금융자산은 2,674조원으로 약 35.3%를 차지
-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 대비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 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과정 진행과 더불어 금융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4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증가는 보험·연금과 현금·예금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투자형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상대적으로 부진
 - 규모 증감(2000년~2014년): 연금·보험 765조원, 현금·예금 743조원, 투자자산(주식, 펀드, 채권) 597조원

국내 가계자산 구성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내 가계 금융자산 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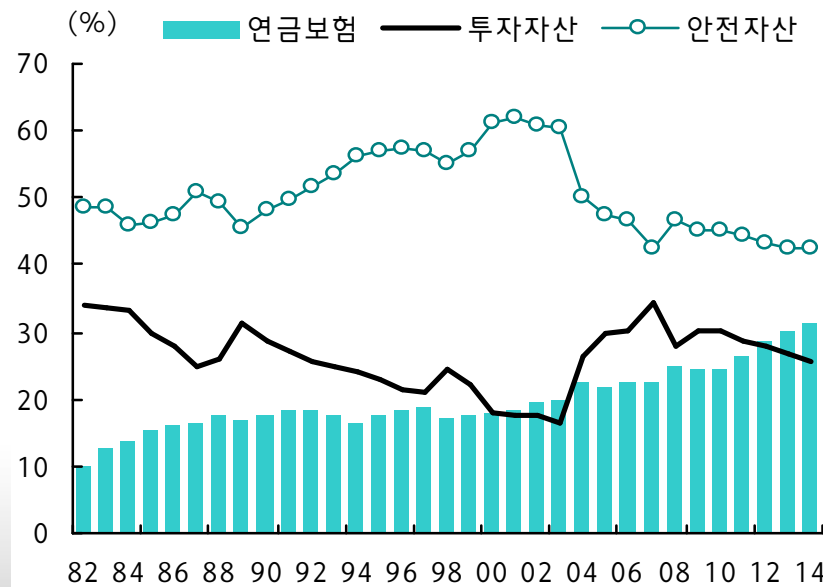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특히 안전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 증가세 뚜렷

- 저성장·저금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0년 이전에는 예금금리가 높고,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 금융자산의 약 60%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구성
 - 이후 자본시장 성숙과 고령화 가속화로 보험·연금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연금자산 비중은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인 2000년 18.1%에서 2014년에는 31.3% 까지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증가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 : 보험·연금 증가율: 16.8%(01-05년), 11.8%(06-10년), 14.2%(11-14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및 펀드 자산 비중이 증가하였고, 금융위기 발발 이후 주가지수 하락을 경험한 후에는 주식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감소
 - 가계보유 주식자산 규모의 증가율 큰 폭 둔화: 연평균 37.6%(98~05년), 연평균 11.2%(09~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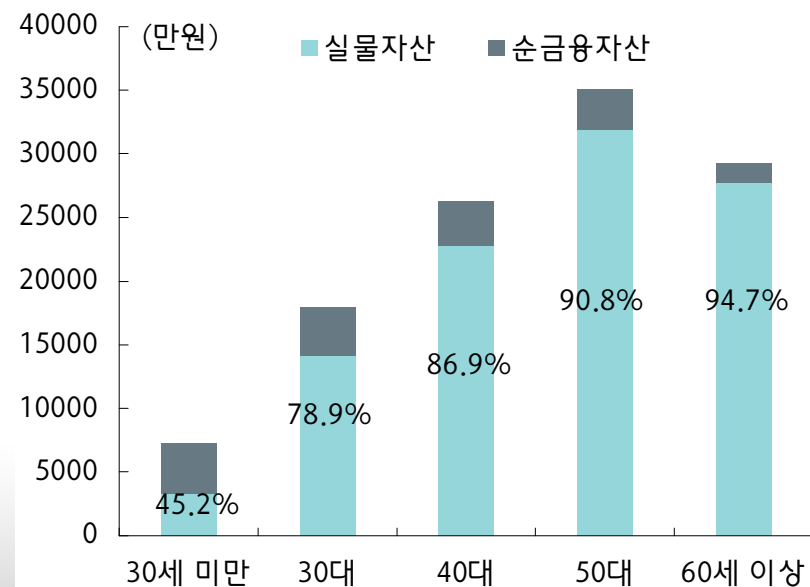
국내 가계자산 구성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가계자산 구성 연령별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참고> 고령화 진전과 한국 대만 일본의 시기별 가계 금융자산 배분

시기	일본	대만	한국
인구 구조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 시점 : 1970년/ 1994년/ 200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 : 1995년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 시점 : 1993년/ 2018년/ 202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 : 2015년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 시점 : 2000년/ 2017년/ 2026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 : 2017년
Phase I	1980년 ~ 1990년 부동산 버블 이전	1993년 고령화 사회 진입 ~ 2000년 IT 버블 이전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 2007년 금융 위기
	투자자산: ○ (17.6%) 연금·보험: ○ (16.2%) 안전자산: ● (8.6%)	연금·보험: ◎ (20.4%) 투자자산: ○ (16.1%) 안전자산: ○ (9.7%)	투자자산: ◎ (19.7%) 연금·보험: ○ (15.7%) 안전자산: ● (8.2%)
	주식 중심으로 증가: 80년~89년 말까지 Nikkei 지수는 6,768pt에서 38,916pt로 475% 상승 연금 대비 보험 규모가 약 3배 크 나, 상승률은 연금이 더 높음	연금 대비 보험 규모가 약 9배 크 나, 연금 규모 상승률이 더 높음 투자자산은 주식 중심: TAIEX는 4,215pt에서 7,847pt로 186% 상승	주식 중심으로 증가: KOSPI는 734pt에서 1,712pt로 233% 상승
Phase II	1990년 버블 이후 ~ 현재	2000년 IT 버블 이후 ~ 현재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 현재
	연금·보험: ● (4.1%) 안전자산: ● (3.1%) 투자자산: - (0.6%) 연금의 높은 상승에 힘입어 연금 대비 보험 규모 차이가 약 1.7배 정도로 축소	연금·보험: ○ (14.5%) 안전자산: ● (5.5%) 투자자산: ● (3.2%) 연금과 보험 규모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해, 보험 규모가 약 7배 큰 수준	연금·보험: ○ (12.9%) 투자자산: ● (7.2%) 안전자산: ● (7.0%) 주식, 채권 중심으로 증가: 채권 비중은 낮으나 규모 증가 속도가 높음
HNWII	2007년 ~ 2010년 평균		
	현금·예금: 30.5% 채권: 24.3% 부동산: 22.3% 주식: 18.3%	현금·예금: 25.8% 주식: 25.3% 채권: 23.0% 부동산: 20.0%	부동산: 36.5% 주식: 22.3% 채권: 18.5% 현금·예금: 18.0%

주1: ◎ 20%대 증가, ○ 10%대 증가, ● 10% 미만 증가
주2: HNWI 관련 데이터는 Merrill Lynch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Wealth Report 참고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미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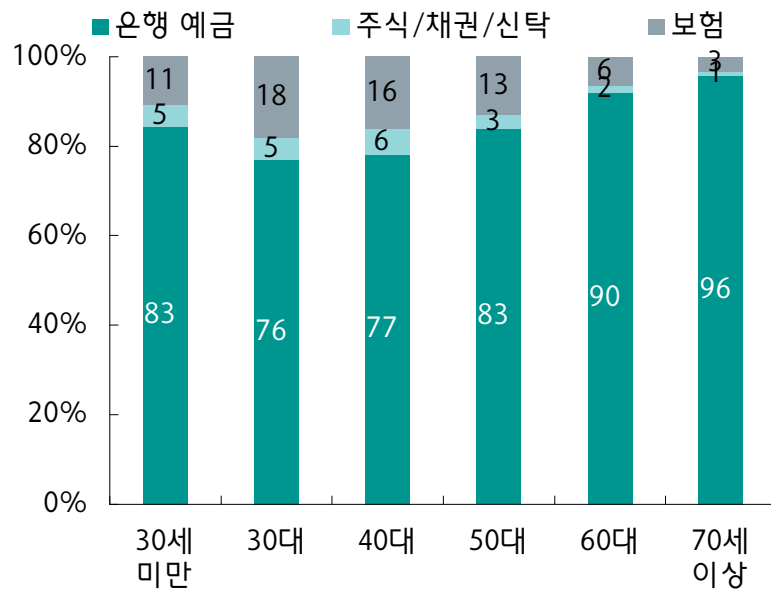
-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에 대한 미시 분석과 고령화가 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령별 자산구성 패턴 변화와 더불어 시계열상의 구조적 변화 여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
 - 2000년대 이후 조사되어 활용이 가능한 가계 미시자료는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대표적
- 노동패널조사는 주식, 신탁, 채권, 펀드 등을 위험자산 항목으로 포괄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패널 조사가 아니고 단순한 횡단면 조사라는 특징 보유
 -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표본 가구수가 많고, 2000년대 초반부터 조사되며 시계열이 긴 것이 특징이나 2012년 이후 조사에서는 은행의 예적금과 펀드를 적립식 저축, 펀드, 예치식 저축, 펀드로 통합해 조사를 실행
 - 한편 동조사는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총 8번 걸쳐 진행되었으나, 매 조사마다 항목의 차이가 커서 장기간의 분석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단점
-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추이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
 - 노동패널은 가구단위에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고 있는 패널 자료로 비교적 장기간의 가계 자산구성 변화를 살피기에 적합
 - : 비금융자산 = 거주주택 가격(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 그 외의 부동산자산 가격
 - : 금융자산 = 현금·예금 + 주식자산(주식, 채권, 신탁 포함) + 저축성보험 + 기타(계, 대여금 포함)
 - : 응답자가 부동산 가격을 잘 모를 경우, 가격을 범위로 대답 → 통계 산출시 해당 범위의 중간값을 활용
 - : 저축성 보험은 만기도래 혹은 해지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산항목에 포함
→ 한편 국내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만기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치는 실제 보험자산보다 작을 가능성 → 따라서 연령별 패턴이나 변화 추세에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

<#>

가계 총보유자산, 50대 정점 기록후 감소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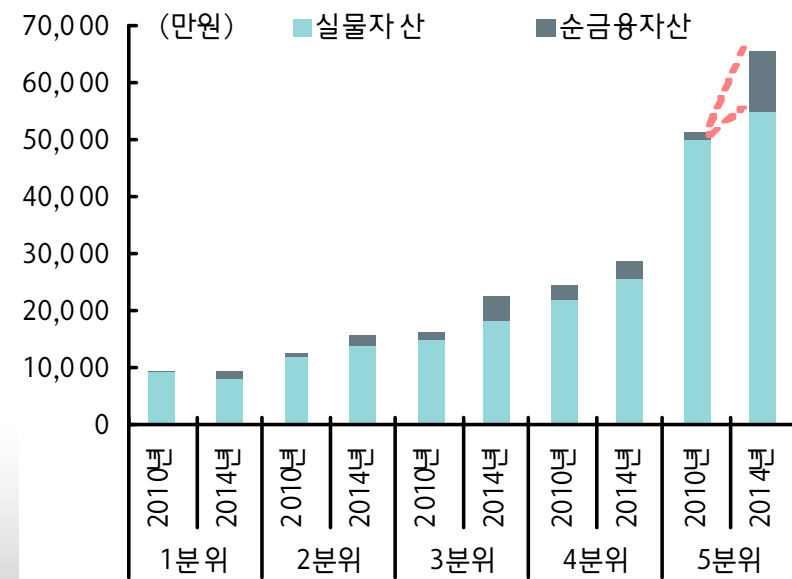
- 국내 가계의 경우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30대에 주택 구입 이후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을 역전
 -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중 차이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더욱 증가
- 60세 이상 가계의 경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모두 감소하는데 이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자산을 노후 주요 지출원으로 활용하고, 자녀 혼인 관련 증여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
- 전반적으로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40대 이후부터 보험과 투자자산(주식/채권/신탁) 비중이 감소 : 일본의 경우 50대 이후 보험자산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이른 시점부터 감소
-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대부분 금융자산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가계 금융자산 구성 연령별 비중 차이



자료: 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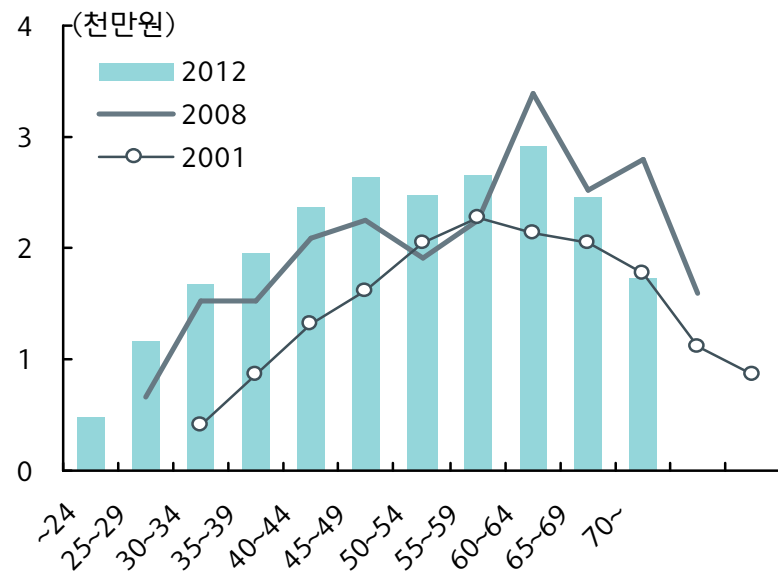
국내 가계 소득분위별 평균 보유자산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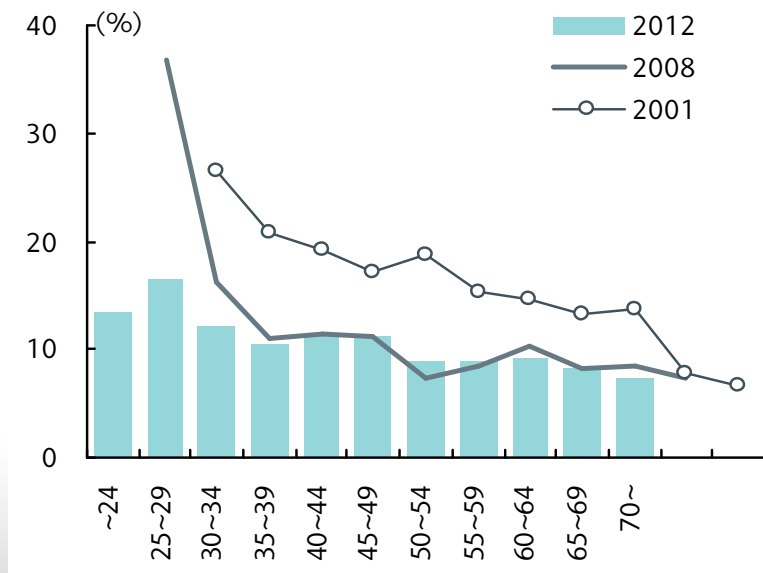
금융자산 규모 정점 : 2000년 50대 초반 → 2012년 60대 초반

- 연령별 가구의 총자산과 순자산 변화 추이 점검 결과, 자산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2000년에 50대 후반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60대 초반으로 이동(Cohort Effect 추정)
 - 가계부채 또한 동일한 현상 존재 : 과거 부채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으로 이동
- 국내의 자산 감소 연령대는 미국·일본에 비해 빠르는데, 이는 자녀 관련 비용 지출 및 공적노후보장 제도 미흡 등이 주요인
 - 선진국의 경우, 고령에도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유산 상속 요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수요, 충분한 공적노후보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가족간 유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 자녀 혼인 및 분가시 증여 형태로 유산상속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자산 감소의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

연령별 금융자산 규모 변화 추이



연령별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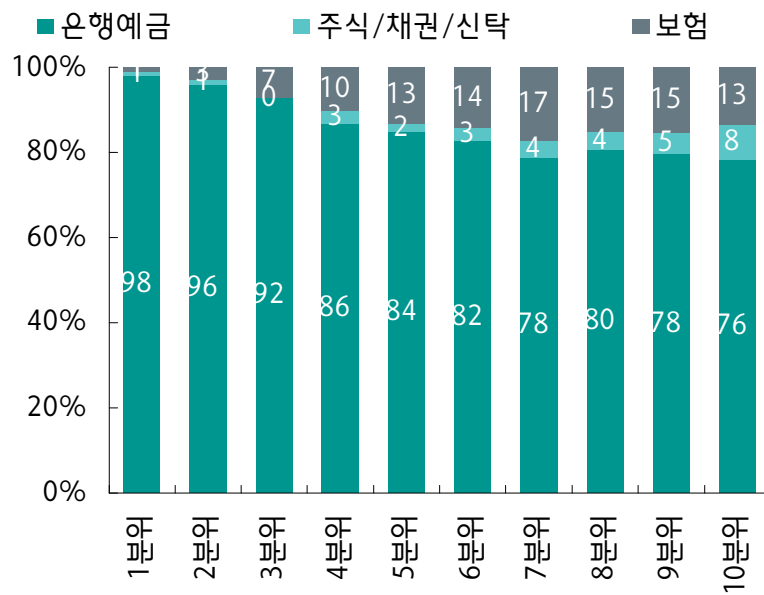
연령별 금융자산 구성

- 연령 증가에 따라 기대소득의 불확실성이나 위험기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
 -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노동공급의 유연성이 높은 젊은 시기에 위험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유산 상속을 위한 저축유인을 고려하면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게 됨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피 성향이 커지게 되어 위험자산 수요가 감소할 것임
 -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연령에 따라 역U자 모양을 가질 것으로 예측됨
- 연령대별로 세부 금융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현금 및 예금의 경우 U자형 곡선을 그리는 반면, 주식 및 보험의 비중은 역U자형 곡선 모양임
 - 예금 및 현금 자산은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보험자산이 역U자 곡선 모양을 취하는 이유는 주식과는 다른데, 35~50세 사이에 부양가족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가계는 60대 중반 이후 위험자산인 주식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초고령 시기인 70세 정도에 금융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2005년과 2012년 비교시, 주식자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별 패턴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금융자산 비중의 감소 추세가 65세 이상 고연령에서 예전에 비해 둔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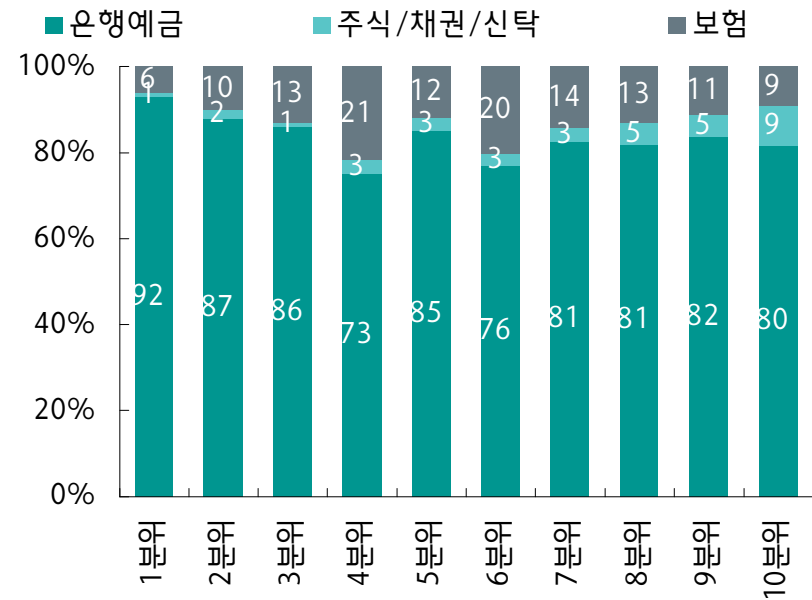
소득 양극화와 더불어 금융자산 양극화 현상도 뚜렷

- 소득 5분위 계층의 순금융자산 비중은 약 26.1%로 전체 가계 금융자산 비중과 비슷하여 투자 여력은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저소득층은 예금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보험과 투자상품 비중이 높아지며 금융자산 다변화를 추구
- 저소득층의 경우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투자 및 노후대비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보유 금융자산 분위별로는 보유 금융자산이 적을수록(1~4분위) 예금 비중이 높은 반면, 중산층(5~7분위)은 보험의 비중이, 보유 금융자산이 많은 8~10분위의 경우는 타계층 대비 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유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위험회피도가 경감되는 전형적인 특성(상대위험회피도)을 기록

국내 가계 금융자산 구성 연령별 비중 차이



국내 가계 소득분위별 평균 보유자산 구성 변화



자료: 노동패널

<#>

<참고> 가계 특성과 자산·부채 항목(비중) 관계

구분	소득 분위별	연령별	순자산 분위별	특징
자산(규모)	증가	증가	증가	
금융자산	감소	감소	감소	60세 이상 퇴직계층의 현금유동성 낮음
저축액	증가	감소	감소	
전월세 보증금		감소	감소	젊은 연령층의 주거 부담
실물자산(부동산)		증가	증가	
거주주택	감소	증가	n-형(50대)	
거주주택 이외 (토지)	U-형(3분위) 감소	증가	U-형(2분위) 증가	차입을 통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투자 증가
부채(규모)	증가	n-형	증가	소득 1분위의 28.8%만이 부채를 보유
금융부채		감소	감소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금융부채 비중 감소
금융대출		감소	감소	
담보대출	증가	n-형(3대)	n-형(3분위)	30대 담보대출/은행권 중심의 구성
신용대출	감소	감소	감소	50대 이상, 신용대출/비은행 개인 비중 상승
임대보증금		증가	증가	
자가주택	감소	증가		60세 이상 현금흐름 개선위해 자가주택 임대
자가 이외	증가	증가	증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투자자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
재무건전성				
총부채/총자산	상승	n-형(30대)	하락	
총부채/금융자산	상승	n-형(50대)	U-형(2분위)	순자산 1분위, 자사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낮음
금융부채/가처분소득	U-형(4분위)	상승	U-형(2분위)	최저·최상층, 소득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낮음

주 : (1) 괄호 ()는 U 또는 n 형태의 저점/고점인 계층을 의미. (2) 소득과 순자산은 5분위 기준이며 연령은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ontents

- I. 서론
-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노동패널 기초 데이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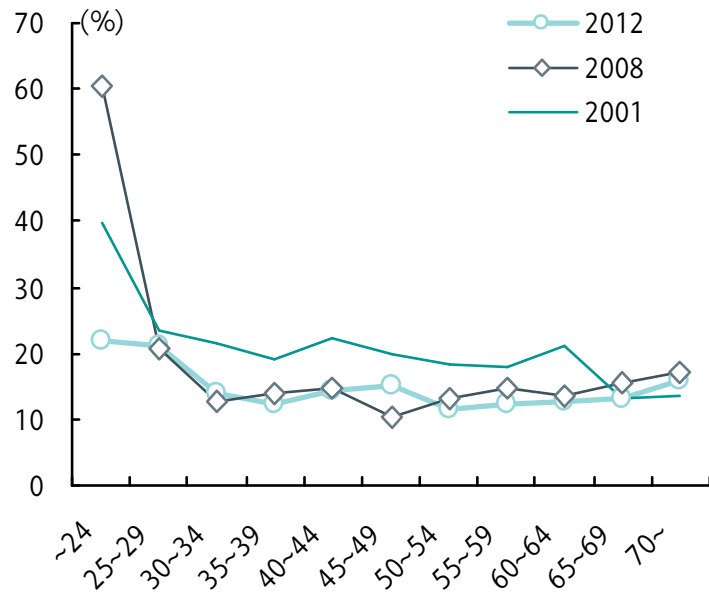
- 노동패널은 가구의 자산과 저축, 부채, 소득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시계열이 긴 자료(1998~2012)로서 가계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를 미시적으로 조사하기에 적합
 -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가계의 저축과 자산 세부 항목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2년으로 설정
- 가구주의 연령과 직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 정보가 없는 가구 데이터는 제외
- 가계 자산은 거주 부동산 시가와 거주외 소유 부동산 시가,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금융자산을 합하여 계산
 - 이때 거주외 소유 부동산의 범주 데이터는 범주의 중간값으로 산정했으며, 시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산분위별 구분 연구시 부각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시가를 추정
 - 보증금 역시 범주 데이터의 경우 중간값으로 산정
-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기타(아직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등)의 합계로 산정했으며, 금융자산이 월평균 저축액과 과도하게 괴리가 있는 경우는 일부 제외
-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사회보장보험, 이전소득, 보험금, 퇴직금 등)의 합계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월저축액은 예/적금과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적립식펀드, 저축성보험, 기타(갯돈 포함)로 구성
 - 월저축액 역시 금융자산과 월평균저축액 세부항목 비교시 과도하게 괴리가 있는 데이터는 제외
- 금융부채는 금융기관부채와 비금융기관부채, 임대보증금부채, 기타부채(차입금, 선수령 후 추가 납입이 남아있는 계 등)로 구성
- 부채 데이터의 경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항목이 좀 더 세부적이고,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 부채에 대한 연구는 14년말 당사에서 작성한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를 참고
- 자산 분위와 금융자산 분위, 가처분소득 분위는 모두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해 산정
 - 이에 따라 실제로 모든 자산이 없는 가구는 데이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하위계층의 데이터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두해 두고 해석할 필요

<#>

거주비용 제약 및 부동산 선호로 금융자산 비중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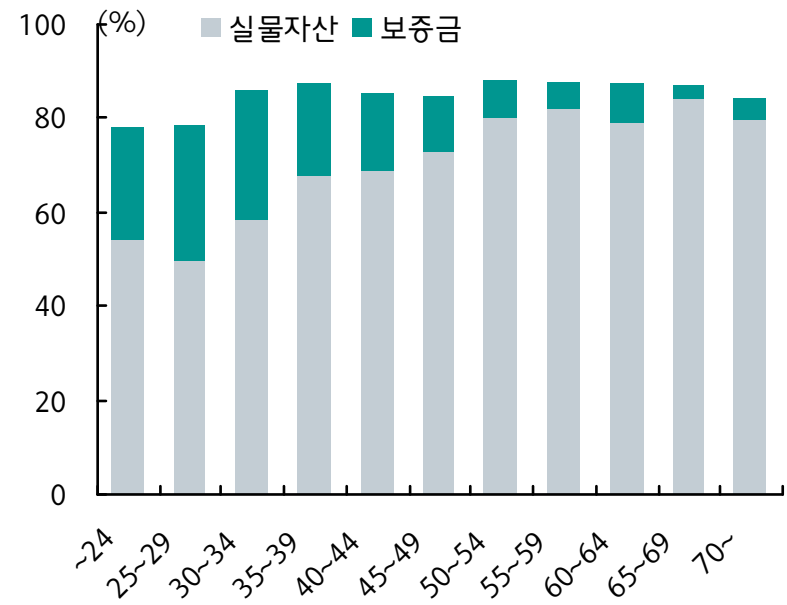
- 국내 가계는 부동산 선호 경향이 커 2012년 기준 30대 이상 가구의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약 14%)은 실물자산 비중에 비해 크게 낮으며, 동 비중은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또한 40대 이하의 경우 자가 미보유 가계 비중이 커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나 거주비용으로 인식되는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 한편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은퇴 후 금융자산 처분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향이 커 총자산 대비 실물 자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
→ 노후에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진행이 불가피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주 :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 대비 실물자산/보증금 비중(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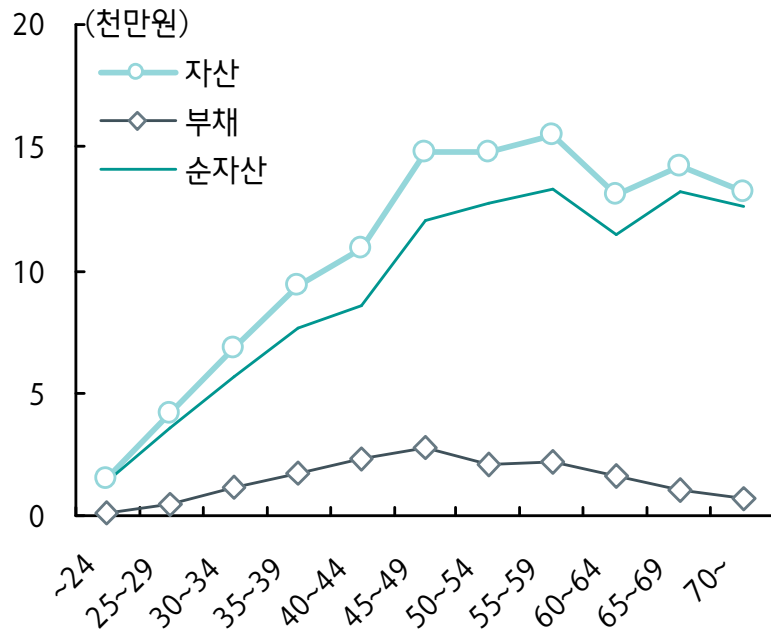
주 :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산 규모는 60대 초반이 정점, 부채 규모는 50대 후반이 정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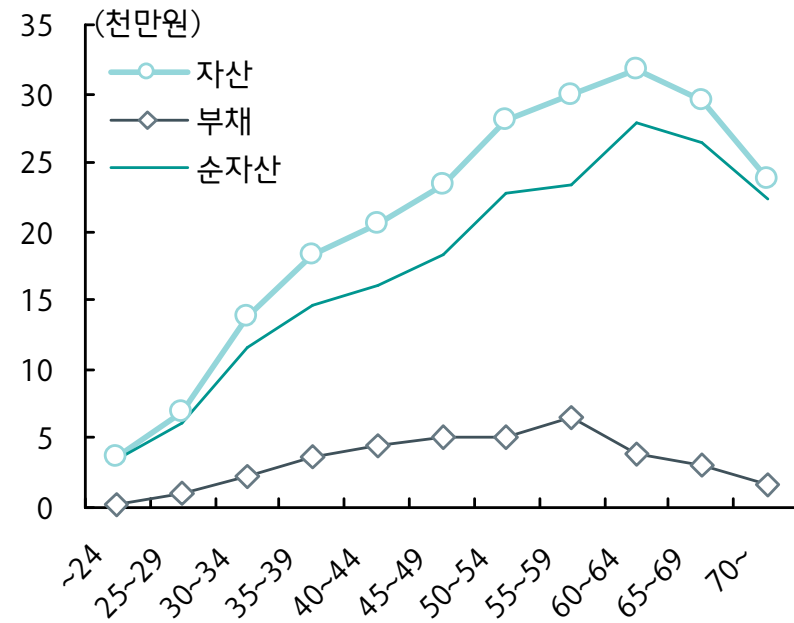
- 가계 자산과 순자산 규모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세를 보이며 60대 초반에 정점 기록후 감소세 반전
- 한편 2001년 연령별 자산과 순자산은 40대 후반~50대 후반 세대가 정점을 이루고 부채 규모도 40대 후반이 정점 - 이는 고도성장기에 자산 형성이 유리했던 40~50대가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자산 상위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한편 2012년 가계의 부채 규모도 연령이 늘어나면서 증가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

연령별 가계의 자산/부채/순자산(2001년)



주: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령별 가계의 자산/부채/순자산(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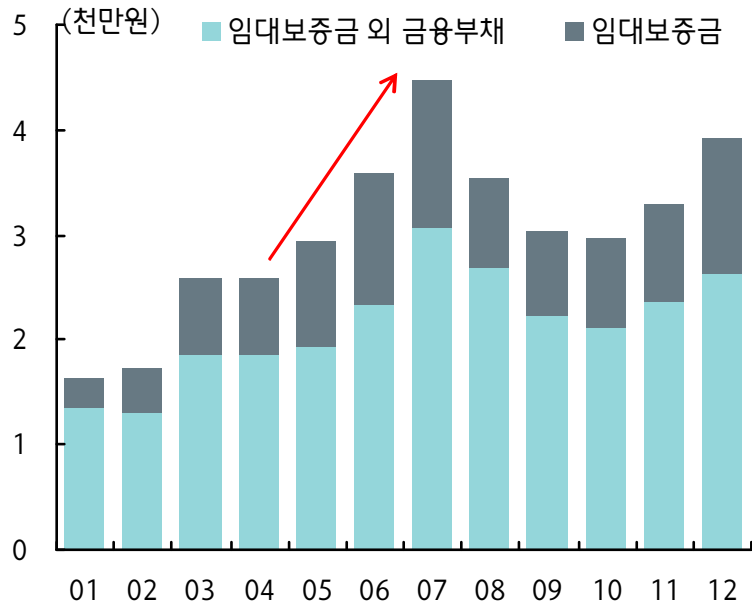
주: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60대는 주택가격 상승기, 50대는 최근에 부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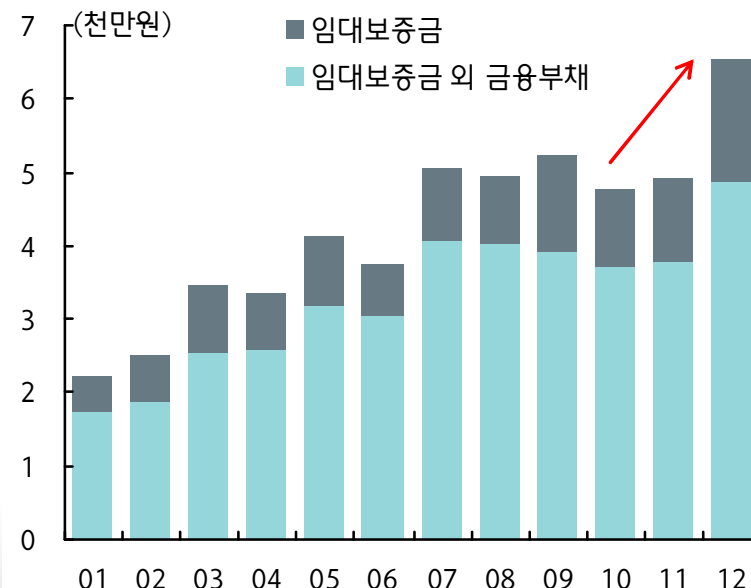
- 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큰 60~64세 가구의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기인 '04~'07년중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차입을 통한 부동산 획득을 반영
 - 또한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반면 2012년 기준 부채 보유 규모가 가장 큰 55~59세 가구의 경우 최근 부채가 임대보증금과 그외 모두 큰 폭 증가
 - 이는 은퇴 후 소득 창출을 위해 부채를 이용하여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으로 추정

60~64세 가구의 금융부채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5~59세 가구의 금융부채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별첨> 재정패널조사 결과

- 가구당 평균 총자산과 총부채 모두 금융위기 직후 일시 위축되었다가 2010~2011년에 미약하게나마 증가
 - 총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씩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88% 내외 수준이며 순자산도 2010년 이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크게 높은 가운데 가계 자산구성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하며 전월세보증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

자산부채 주요 항목 명목 액수 및 구성 비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패널 가구 수	5,014	5,039	4,830	4,778	4,740
가구주 평균 연령	49.9	50.1	51.2	51.9	51.7
평균 가구원 수	2.97	3.01	3.00	2.98	2.96
연간소득	3,342	3,414	3,455	3,829	3,972
총자산	24,835	24,131	25,006	27,698	27,733
금융자산(비중)	2,578	2,571	2,913	3,223	3,307
전월세 보증금(비중)	1,928	2,073	2,482	2,913	2,762
부동산(비중)	18,967	18,154	18,175	20,016	20,081
기타자산(비중)	1,361	1,332	1,436	1,546	1,584
총부채	3,693	3,856	3,771	4,084	4,139
주택담보대출			1,672	1,787	1,722
순자산(총자산-총부채)	21,142	20,275	21,235	23,614	23,595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자산별 액수 및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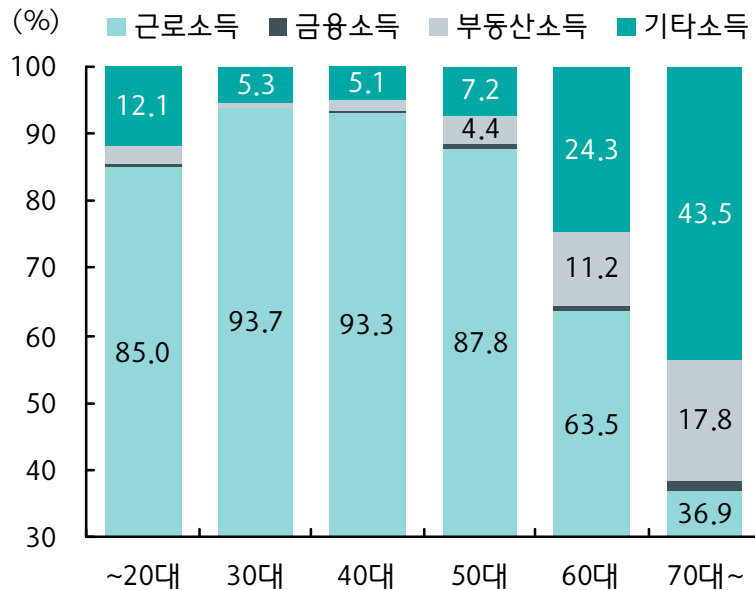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융자산	2579.2	2570.8	2913.3	3223.2	3306.5
은행예적금	1436.9	1450.9	1651.8	1899.7	2049.8
(비중)	55.7	56.4	56.7	58.9	62.0
채권	16.2	6.0	14.1	21.4	22.4
(비중)	0.6	0.2	0.5	0.7	0.7
주식	319.9	280.8	334.6	357.0	315.9
(비중)	12.4	10.9	11.5	11.1	9.6
펀드	329.2	305.4	279.8	243.7	243.8
(비중)	12.8	11.9	9.6	7.6	7.4
기타금융자산	477.8	527.7	633.0	701.5	674.5
(비중)	18.5	20.5	21.7	21.8	20.4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근로소득 비중은 30~40대가 고점, 기타소득은 60대 부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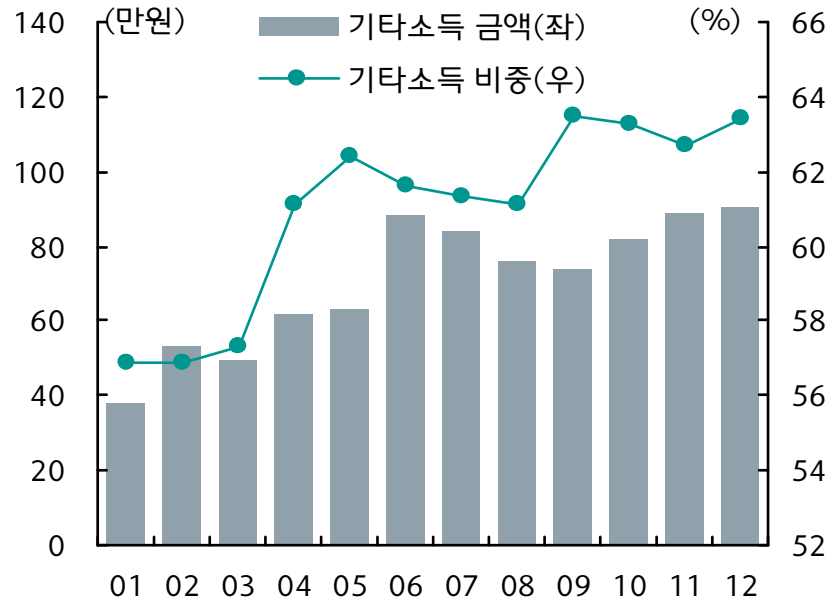
- 연령별 소득을 원천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소득의 경우에는 60대와 70대의 비중이 높아, 가계의 노후대비를 위한 거주 외 부동산 보유 성향을 반영
- 한편 정부지원금과 연금, 보험금 등이 포함된 기타소득의 경우 60대부터 비중이 급증하여 70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향후 은퇴자들의 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대 및 세금혜택 등에 기반한 연금과 보험 수요 증대 성향 고려시 향후 동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

연령별 소득 원천별 비중(2012년)



주 : 소득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7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기타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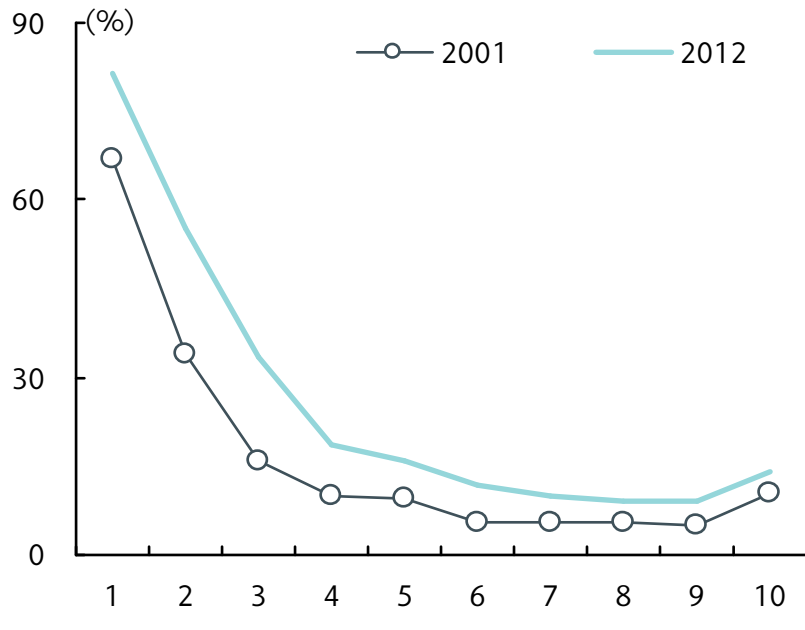
주 : 소득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고소득층 부동산·금융소득, 저소득층 기타소득 비중 높아

- 소득 분위별 근로소득 외 가치분소득 비중 점검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원천의 차별화 현상 뚜렷
 -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금 등 이전소득 증가로 근로외 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높아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이전소득 확대 및 고령화 추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추세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외 가치분소득 비중



주 : 소득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치분소득 9~10분위 가구의 소득 구성(%)

	9분위				10분위			
	근로	금융	부동산	기타	근로	금융	부동산	기타
2001	94.9	1.5	1.5	2.1	89.4	3.0	4.2	3.5
2002	93.3	1.8	2.3	2.6	83.4	2.3	9.5	4.8
2003	93.5	1.2	3.3	2.0	87.2	1.6	7.8	3.3
2004	93.3	0.9	2.2	3.5	88.7	1.4	6.9	3.0
2005	93.5	1.1	2.2	3.2	85.5	1.4	9.7	3.3
2006	89.9	1.2	2.9	6.1	78.2	2.0	8.1	11.7
2007	88.7	1.2	3.4	6.7	80.5	2.0	8.4	9.1
2008	90.7	0.9	1.8	6.6	82.6	1.7	7.6	8.1
2009	90.8	0.9	2.2	6.0	84.0	1.4	5.4	9.3
2010	91.1	0.9	2.7	5.4	83.9	1.5	5.4	9.2
2011	91.7	0.6	2.4	5.2	87.2	1.5	4.3	7.0
2012	91.1	0.6	2.4	5.9	86.1	1.0	5.1	7.8

주 : 소득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ontents

- I. 서론
-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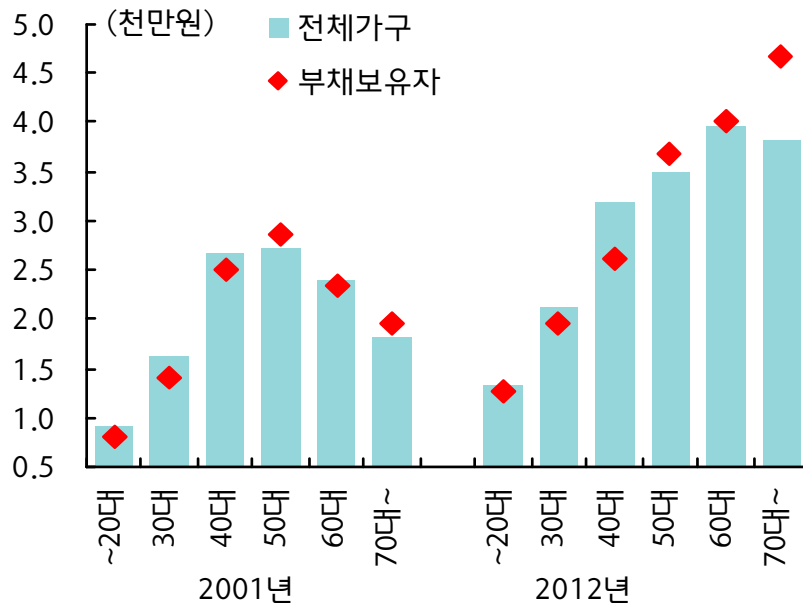
V. 시사점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50대 이상은 자산형성 목적, 40대 이하는 실수요 차원의 부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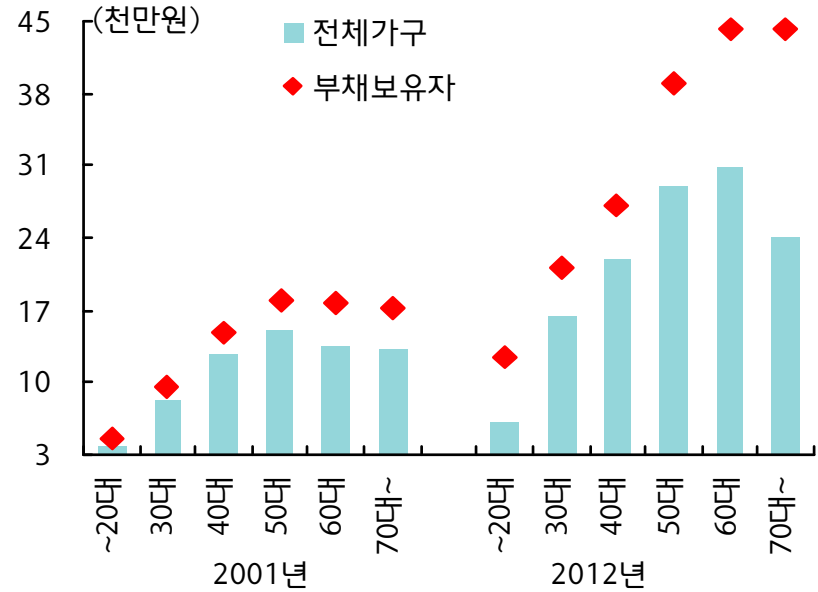
- 40대 이하 부채보유 가구와 50대 이상 부채보유 가구간에는 부채보유 성향상에 뚜렷한 차이 존재
- 현재 50대 이상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기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확대한 세대로 자산형성을 위한 부채 보유 목적이 크며, 실제로 5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자산 비교시 자산보유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반면, 40대 이하 가구의 경우 보유 자산 규모 격차도 작고, 금융자산은 오히려 부채 미보유자보다 작음
 - 이들 세대의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했던데다, 자가 마련과 교육비 등 실수요 목적의 부채 보유 성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금융자산



주: 금융자산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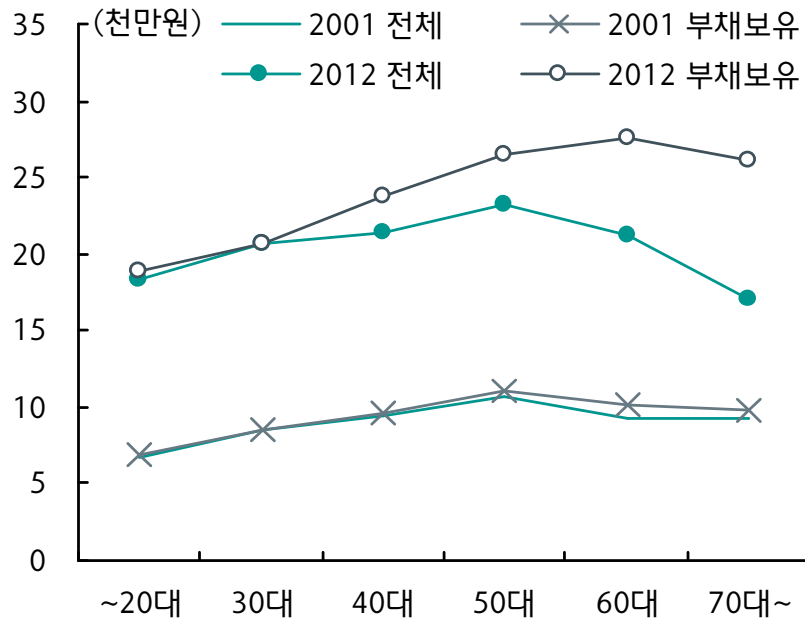
주: 자산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50대 이상 부채 보유 가구, 과거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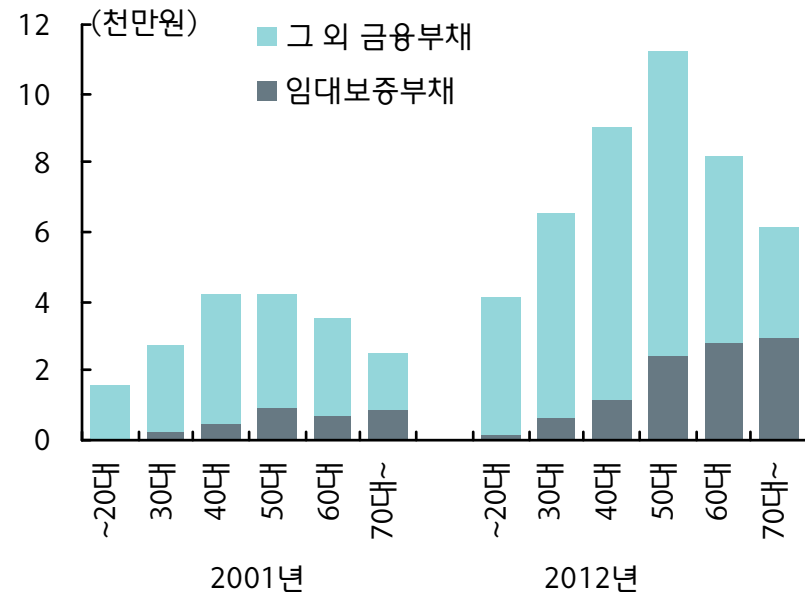
- 5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보유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것으로 확인
- 한편 연령별 금융부채 구성을 보면 50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임대보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들은 부동산 획득을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
 - 주택가격 하락 압력 부각, 주택시장 환경 변화로 금융자산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채상환 위험 증대
- 반면 40대 이하 가구의 경우 전체 부채 중 임대보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들은 주로 실수요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거주주택 가격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령별 금융부채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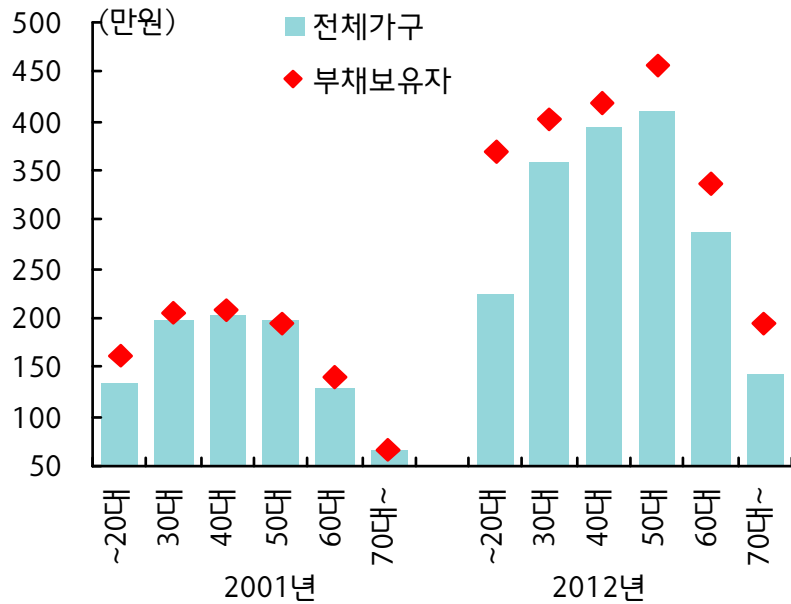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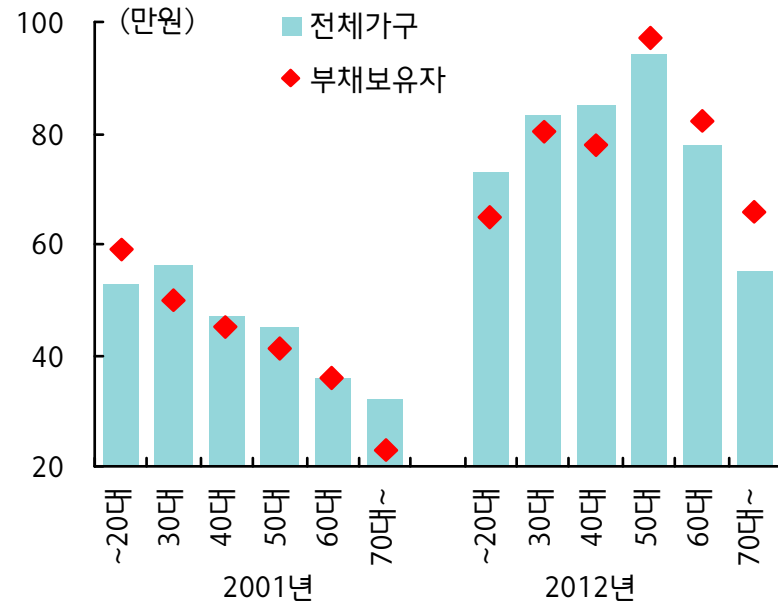
40대 이하, 부채상환능력이 클수록 부채 보유가 큰 성향

- 부채보유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최근 더욱 심화되는 모습
-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상환능력이 클수록 부채를 활용하는 경향이 크며, 실제로 가처분소득은 높은 반면 월저축액은 작아 이들 세대는 소득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70대 이상은 월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 보유 자산 처분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
- 한편 세대별 저축액을 비교해보면,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인 50대가 저축액도 가장 크며 70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노후와 유산상속 등의 목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비교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월저축액 비교



주 : 소득 세부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에 한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 소득 비중은 부채 보유 70대 가구가 가장 높아

- 부채보유가구와 전체가구의 소득 원천 비교시 부채보유가구의 부동산소득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채보유가구가 부채를 활용해 거주외 부동산을 구입하여 기타 소득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 또한 가처분소득에서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소득 창출원으로서 부동산 보유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월지급식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
- 한편 70대 부채보유가구는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20%p 가까이 낮은데, 이는 부채 미보유 가구들이 정부지원금이나 보험, 연금 등 기타소득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도 크게 낮기 때문

전체가구와 부채보유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 비교

(단위 : %)

		전체가구			부채보유가구					전체가구			부채보유가구		
		2001	2009	2012	2001	2009	2012			2001	2009	2012	2001	2009	2012
~20대	근로소득	92.6	83.8	85.1	94.8	88.9	85.0	50대	근로소득	88.5	86.0	87.4	89.5	87.8	87.8
	금융소득	0.2	0.6	0.1	0.3	0.5	0.3		금융소득	2.5	0.8	0.8	1.8	0.5	0.6
	부동산소득	0.5	0.2	0.5	0.0	0.8	2.7		부동산소득	2.8	2.8	2.5	3.8	4.1	4.4
	기타소득	6.7	15.4	14.3	4.9	9.8	12.1		기타소득	6.2	10.3	9.3	4.9	7.7	7.2
30대	근로소득	95.3	92.1	93.9	94.7	91.8	93.7	60대	근로소득	66.3	61.1	61.9	75.2	64.5	63.5
	금융소득	0.7	0.5	0.3	0.5	0.2	0.2		금융소득	3.3	2.3	1.5	2.4	1.4	1.0
	부동산소득	0.5	0.4	0.4	0.7	0.6	0.7		부동산소득	6.0	5.7	6.0	6.8	9.1	11.2
	기타소득	3.5	6.9	5.4	4.0	7.5	5.3		기타소득	24.4	30.9	30.6	15.6	24.9	24.3
40대	근로소득	92.9	92.1	93.8	92.9	92.7	93.3	70대~	근로소득	31.1	27.1	27.9	36.1	40.1	36.9
	금융소득	1.0	0.7	0.3	0.9	0.2	0.3		금융소득	3.7	2.8	1.9	2.4	2.0	1.7
	부동산소득	1.3	1.1	0.8	1.6	1.4	1.3		부동산소득	8.3	6.6	6.8	15.6	15.7	17.8
	기타소득	4.8	6.1	5.0	4.6	5.6	5.1		기타소득	56.9	63.5	63.4	45.9	42.3	43.5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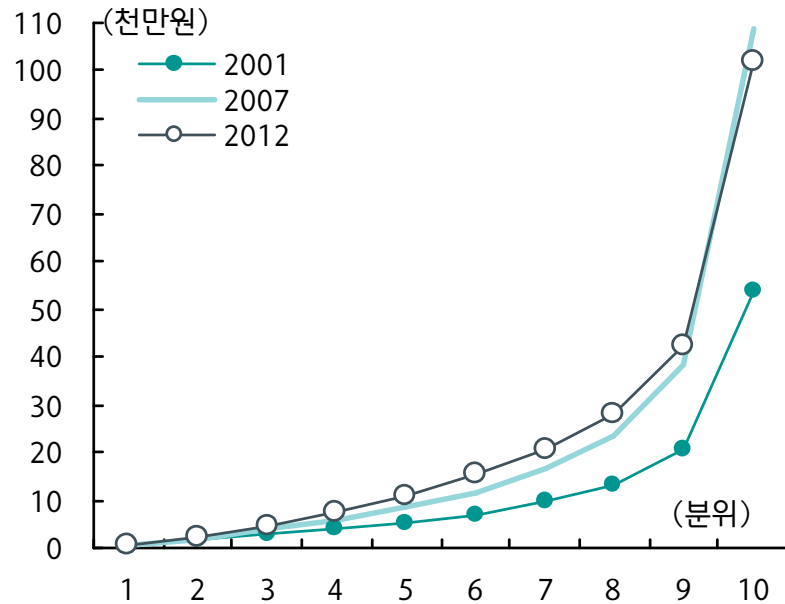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

자산 양극화, 2008년 정점 이후 다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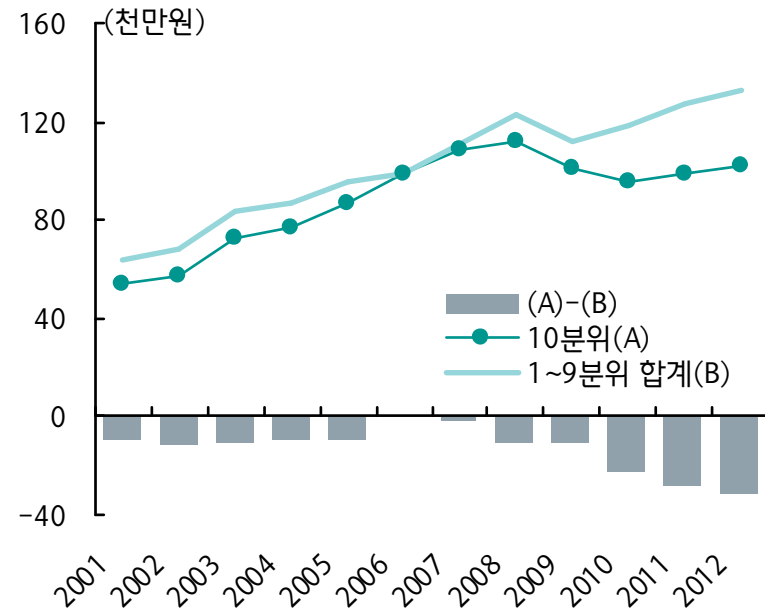
- 가계의 자산분위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전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이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8년까지 자산 1~9분위 계층의 평균 자산보유 규모 합계와 자산10분위 계층의 자산 보유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자산의 약 50% 정도를 자산 상위 10%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내 가계의 자산규모는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정점을 이룬 후 하락했는데, 자산 상위 계층의 경우 보유 자산 규모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국내 가계의 자산 편중현상은 다소 완화

자산분위별 자산규모 격차



주 :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위별 순자산규모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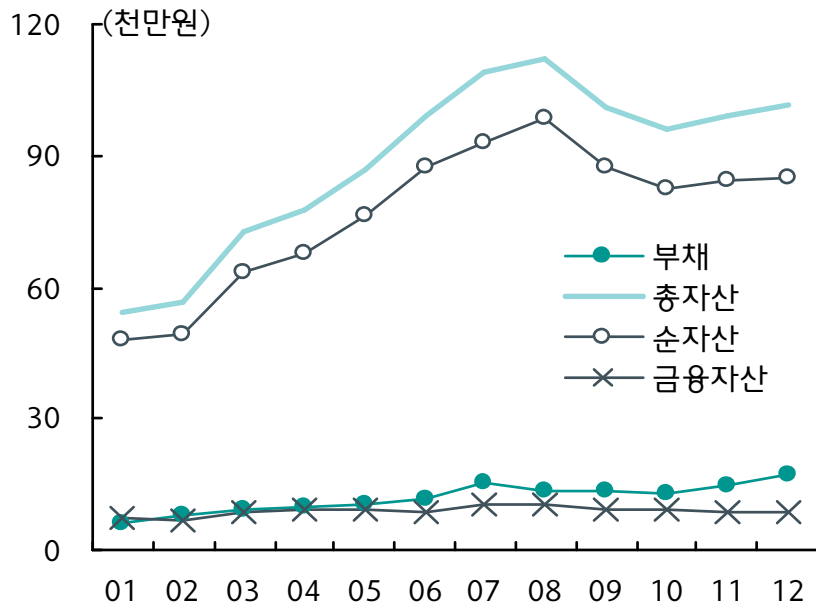
주 :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산 10분위 보유 주택가격 하락이 양극화 완화의 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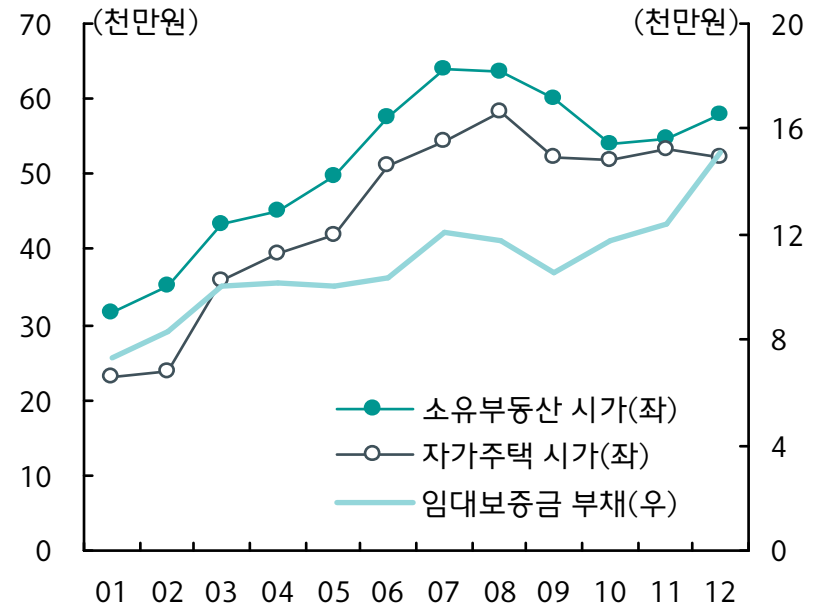
- 자산 10분위 계층의 자산규모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주로 기인했으며 하락한 부동산 가격은 2012년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
- 특히 거주 외 부동산 가격이 자가주택 시가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자가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2008년 고점 기록으로 하락한 이후 2012년까지 부진을 지속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자, 주택 보유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도 상승해 자산 상위 계층의 임대보증금 부채는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

자산 10분위 계층의 자산과 부채 추이



주 : 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 10분위 소유부동산과 자가주택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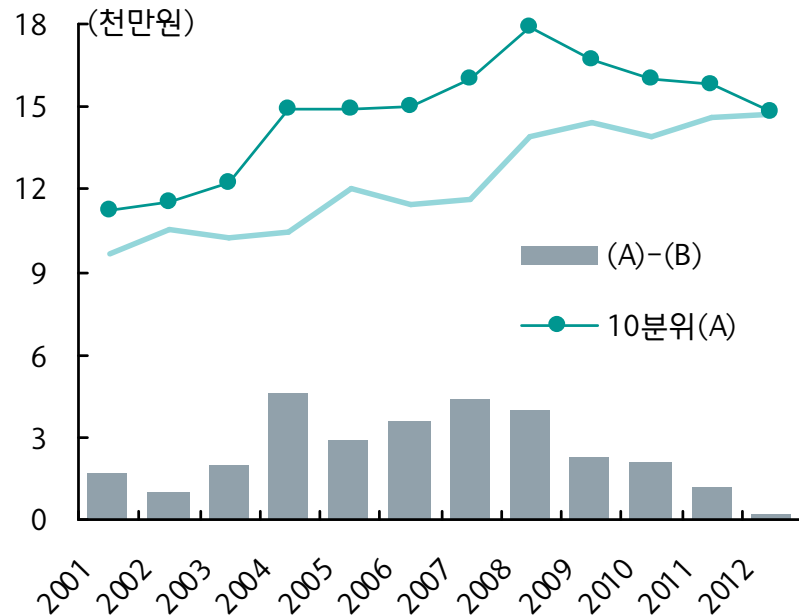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보다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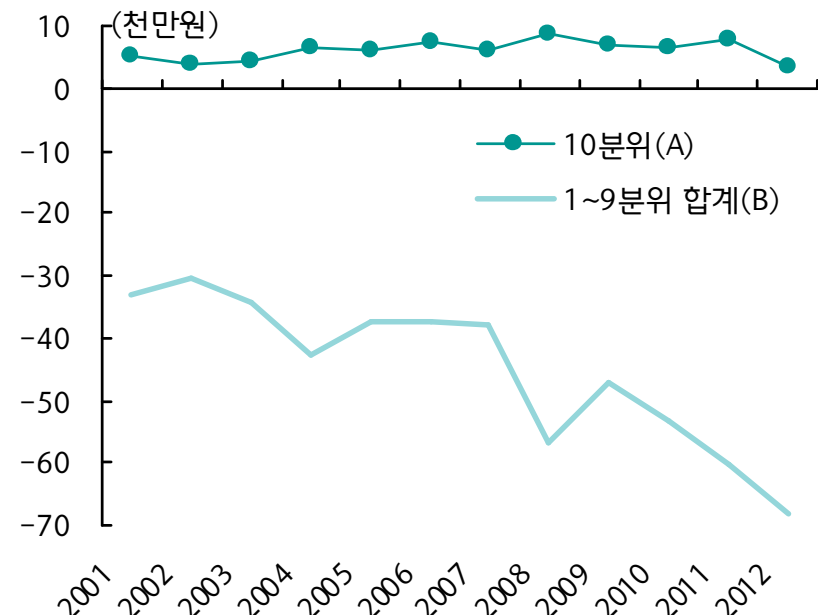
- 가계 금융자산의 편중 현상은 자산 편중보다 심각해 2012년까지 금융자산 상위 10분위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나머지 계층의 평균 금융자산 보유 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 10분위의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감소한 반면, 하위층의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10분위의 금융자산 규모와 1~9분위의 금융자산 규모 합이 약 1.4억원 수준으로 수렴
 - 금융자산 10분위의 금융자산 감소는 부채 상황의 영향으로 순금융자산 규모는 일정수준을 유지
 - 반면 하위계층의 경우 금융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금융자산 분위별 순금융자산 규모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

금융자산 분위별 금융자산 보유 규모



주 : 금융자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한 가구 대상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분위별 순금융자산 규모 격차



주 : 1~9분위 금융자산 규모는 각 분위 평균 금융자산의 합계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보유자들의 상위 계층은 대부분 50~60대 가구

- 2000년대 초반 금융자산 보유자 10분위 계층의 연령 분포를 보면 고소득층인 40~50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자산 규모 10분위 내에서도 해당 계층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도성장기 여유자금이 많았던 고소득층 가구가 자산증식을 주도함에 따라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격차가 심화
- 또한 고도성장기 금융자산 보유 상위층이 현재 50대~60대로 진입해서도 상위층을 차지하면서 2012년 현재 금융자산 10분위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금융자산 분위별 연령 분포

(단위: 명)

	9분위				10분위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1	70	80	54	42	52	99	73	50
2002	84	114	90	68	52	88	71	52
2003	74	91	70	51	48	106	105	61
2004	87	109	100	67	51	71	81	44
2005	72	96	77	43	57	83	76	66
2006	62	86	72	44	55	80	78	68
2007	78	75	71	41	53	91	95	68
2008	59	76	65	55	49	72	73	59
2009	67	89	96	69	42	103	77	79
2010	71	85	87	78	48	100	85	88
2011	75	88	85	75	42	98	104	97
2012	72	87	128	93	44	96	103	105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분위별 각연령대 금융자산 규모

(단위: 만원)

	9분위				10분위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1	3,626	3,506	3,440	3,448	7,814	13,077	12,232	10,818
2002	3,804	3,880	3,741	3,674	8,020	11,130	12,183	15,072
2003	3,569	3,483	3,442	3,451	8,623	11,504	14,550	13,529
2004	3,803	3,841	3,950	3,928	11,469	12,850	17,617	14,263
2005	4,262	4,341	4,439	4,369	10,619	11,830	16,370	17,841
2006	4,268	4,373	4,494	4,508	10,358	13,222	17,017	17,589
2007	4,481	4,504	4,516	4,593	12,442	13,001	20,090	16,271
2008	4,824	4,853	4,883	4,748	13,661	12,999	21,402	22,900
2009	4,835	4,923	4,800	5,028	11,786	14,826	14,867	23,291
2010	4,840	4,690	4,863	4,930	11,695	14,735	14,608	20,934
2011	4,924	4,931	4,921	4,903	11,193	13,808	16,144	16,944
2012	4,913	4,872	4,944	4,945	12,649	14,554	14,334	15,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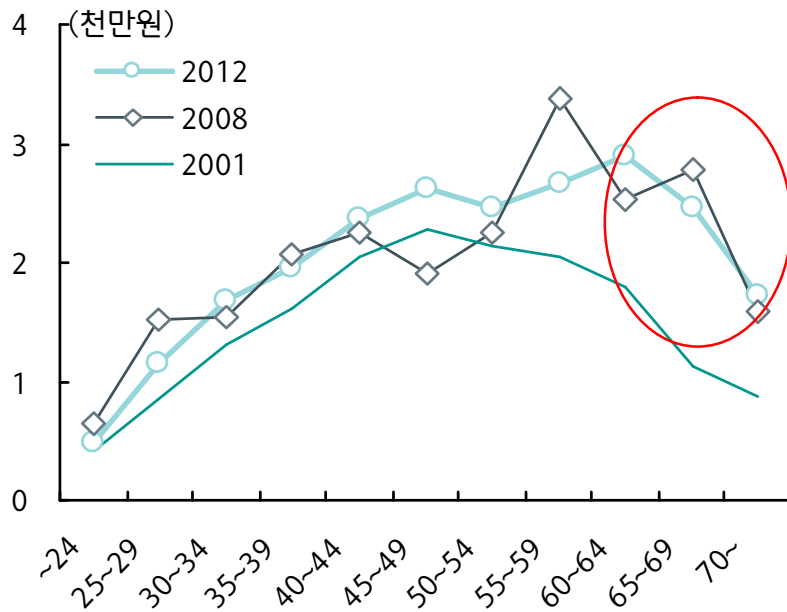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60대 이상 가구에서 금융자산 양극화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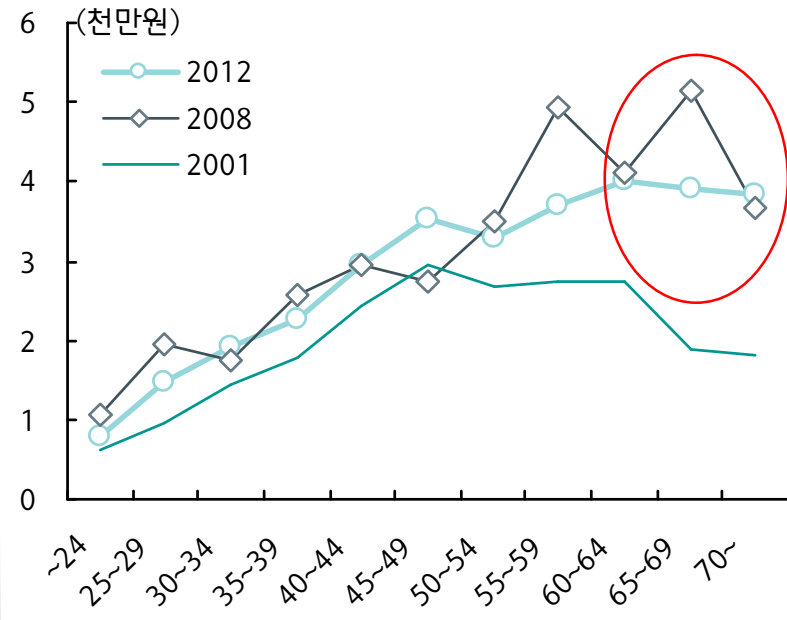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해 60~64세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 2008년에는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 정점이 50대 후반이었으며, 해당 세대는 현재 60대 초반으로 진입해서도 금융자산 상위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층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자산을 우선 처분함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급격히 감소
 - 다만, 고연령층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규모에 큰 차이가 존재해, 고령층의 금융자산 양극화 현상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추정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보유자들의 금융자산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ontents

- I. 서론
-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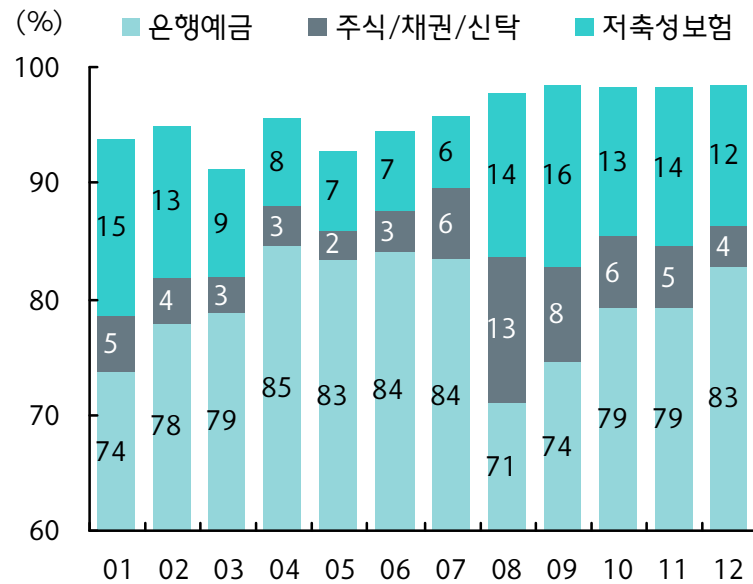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

가계 금융자산 내 은행예금 비중은 8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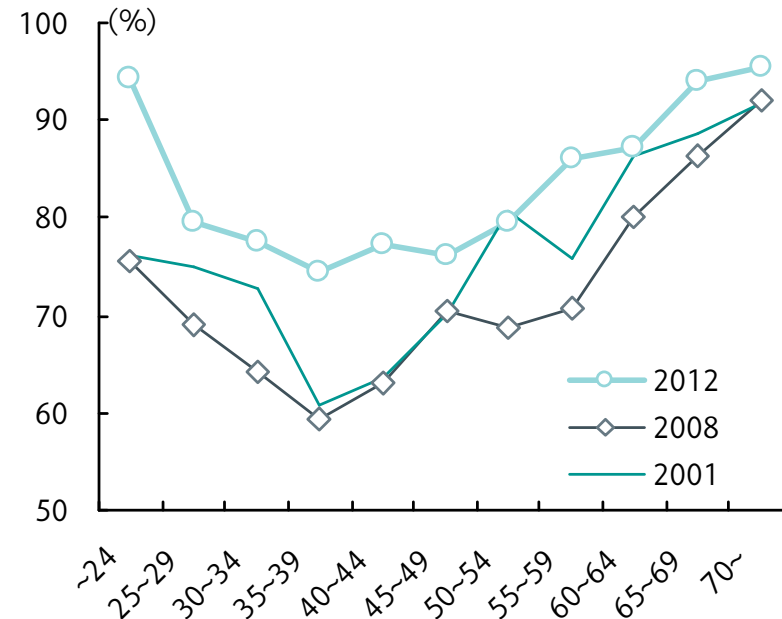
- 국내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로 금융자산 중 은행 예금의 비중은 2012년 기준 80%를 상회
- 특히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07~08년에는 위험선호현상이 증대되며 주식/펀드 투자 비중이 급증했으나, 금융 위기로 인한 주가 급락 이후 주식/펀드 보유 성향이 크게 감소하며 예금자산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
- 연령별 금융자산에서 예금의 비중은 U자형 곡선 형태를 띄고 있으며, 50대 후반 이후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금융 자산 수요로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확대되며 금융자산에서 예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한편 30대 이하 가구는 주택과 결혼비용 마련 등을 위해 안전하고 보다 유동성이 높은 은행예금을 선호

금융자산 구성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중 은행예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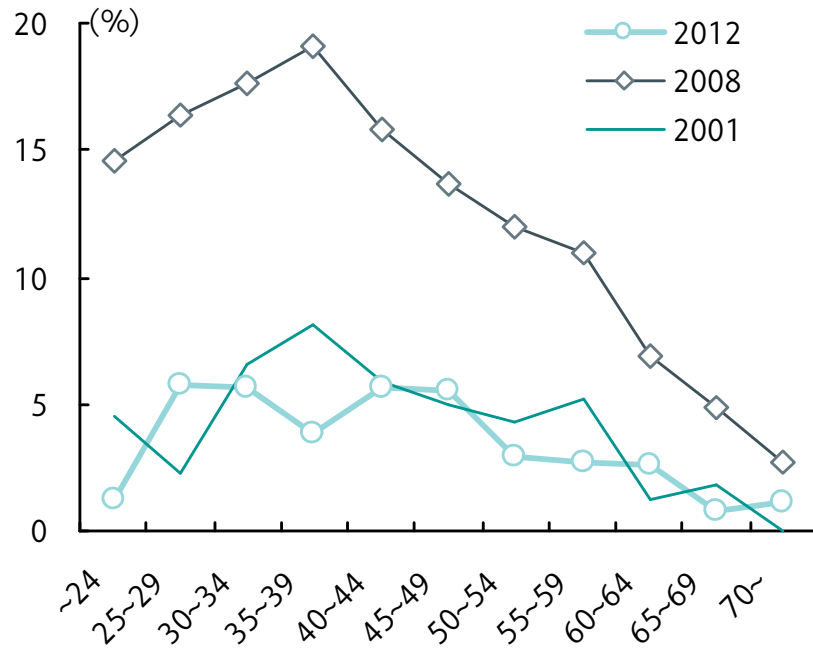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연령별 주식/채권/신탁 비중과 저축성보험 비중은 역 U자 형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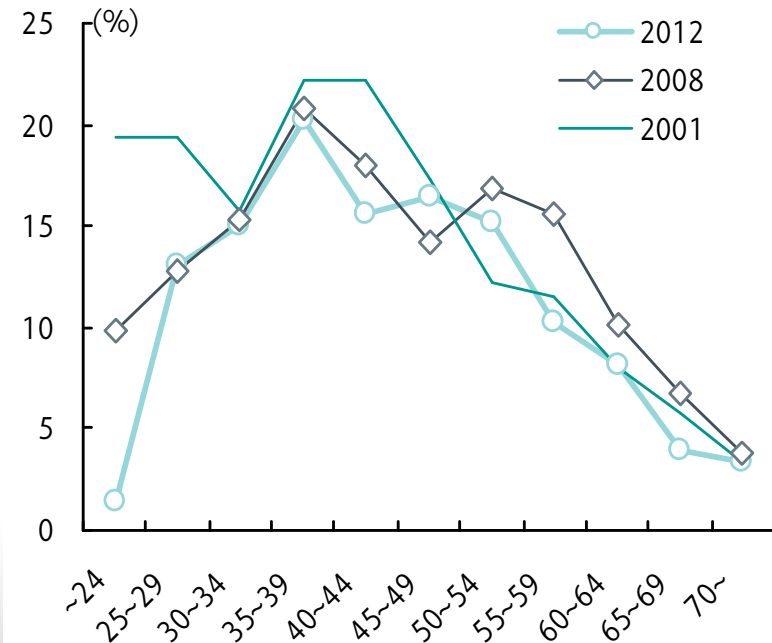
-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채권/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
- 가계의 연령별 금융자산 중 주식/채권/신탁 비중 정점은 2008년 30대에서 2012년 40대로 이동
 - 이는 과거 주식투자 선호 연령층이 여전히 비슷한 선호를 유지한데 기인(cohort effect 존재)
- 한편 저축성보험 비중은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하나, 자산규모로 보면 금융자산이 보다 큰 40대 후반이 정점
 - 이는 부양가족이 가장 많은 30대 후반~50대 초반 가구의 보험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

금융자산 중 주식/채권/신탁 비중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중 저축성보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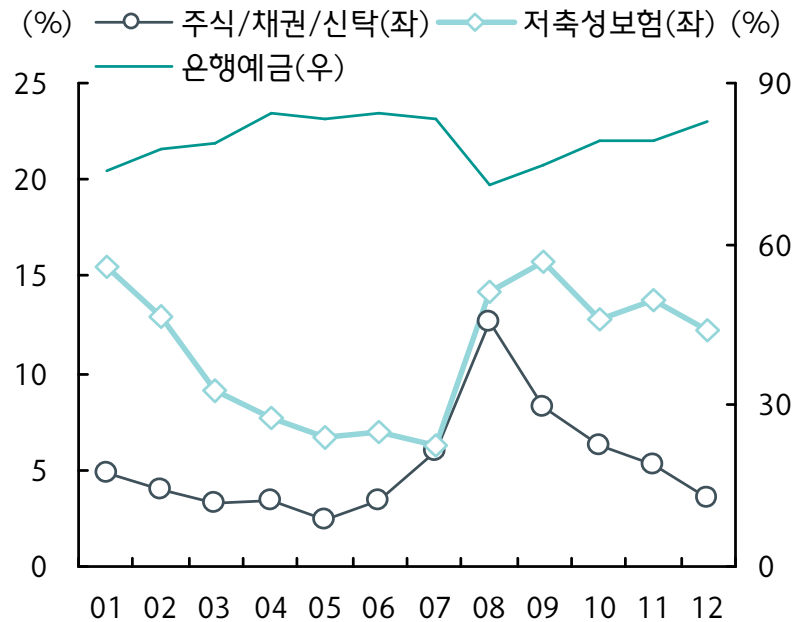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상위층, 투자형상품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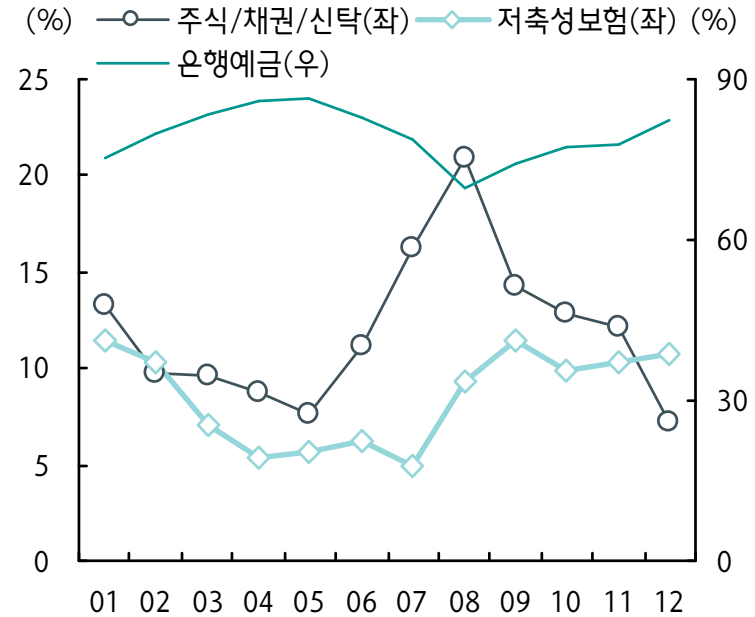
- 개별 가구의 금융자산 구성 평균과 가계 전체 금융자산 구성 비중 비교시 주식/채권/신탁 비중에 큰 차이 존재
- 자본보유 계층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채권/신탁에 투자함에 따라, 개별 가계자산 비중 대비 전체 규모가 큼
 - 반대로 금융자산 중하위 계층은 주식/채권/신탁보다 저축성 보험을 선호해 개별 가구 평균 비중이 전체 가계 자산 평균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
 - 투자형상품 시장 부진, 세제 개편 등으로 자산보유 상위 계층이 저축성보험 가입을 확대함에 따라 2010년 이후 개별 가구의 저축성보험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 금융자산내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

개별 가구의 금융자산 구성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저축성보험 비중은 금융자산 중위 계층이 제일 높음

- 2007~2008년 주가상승기 금융자산 하위층의 경우 은행예금과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축소, 중위층은 저축성 보험을 축소, 반면 상위층의 경우는 기타자산의 비중을 축소해 주식/채권/신탁 자산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주가급락 등의 여파로 가계는 주식/채권/신탁 자산을 빠르게 축소해 주로 은행예금으로 축적
 - 이에 따라 가계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금융자산 중하위계층의 경우 과거 금융위기 이전 대비 감소한 반면, 상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축성보험 비중이 소폭 증가

금융자산 분위별 금융자산 비중

(단위 : %, %p)

		2001(B)	2008	2012(A)	2012(A)-2001(B)			2001	2008(B)	2012(A)	2012(A)-2008(B)
1분위	은행예금	72.3	75.0	92.1	19.8	6분위	은행예금	78.1	58.9	75.8	-2.3
	주식,채권,신탁	0.5	10.1	1.4	0.9		주식,채권,신탁	3.1	16.7	3.2	0.1
	저축성보험	19.8	14.1	6.2	-13.6		저축성보험	14.7	21.5	19.7	5.0
	기타	7.3	0.9	0.4	-6.9		기타	4.1	2.9	1.4	-2.7
2분위	은행예금	83.2	74.4	86.6	3.4	7분위	은행예금	62.5	74.7	81.1	18.6
	주식,채권,신탁	0.9	12.6	2.0	1.1		주식,채권,신탁	7.5	9.9	2.9	-4.6
	저축성보험	11.1	12.4	10.3	-0.8		저축성보험	21.2	12.6	13.8	-7.4
	기타	4.8	0.6	1.0	-3.8		기타	8.8	2.8	2.2	-6.6
3분위	은행예금	75.2	77.9	85.3	10.1	8분위	은행예금	78.0	67.8	80.7	2.7
	주식,채권,신탁	0.5	6.6	1.2	0.7		주식,채권,신탁	6.2	13.2	4.5	-1.7
	저축성보험	20.0	13.5	12.6	-7.4		저축성보험	10.8	15.8	13.2	2.4
	기타	4.4	1.9	0.8	-3.6		기타	5.0	3.3	1.6	-3.4
4분위	은행예금	68.2	63.1	72.7	4.5	9분위	은행예금	74.0	70.8	81.9	7.9
	주식,채권,신탁	0.6	15.2	2.7	2.1		주식,채권,신탁	10.1	14.0	5.0	-5.1
	저축성보험	26.8	20.1	21.1	-5.7		저축성보험	10.9	11.5	11.6	0.7
	기타	4.4	1.6	3.5	-0.9		기타	5.0	3.7	1.4	-3.6
5분위	은행예금	73.6	76.5	84.7	11.1	10분위	은행예금	68.4	69.6	80.1	11.7
	주식,채권,신탁	2.5	8.8	2.7	0.2		주식,채권,신탁	13.6	19.8	9.0	-4.6
	저축성보험	18.6	13.1	11.5	-7.1		저축성보험	6.6	8.1	8.6	2.0
	기타	5.3	1.5	1.2	-4.1		기타	11.4	2.5	2.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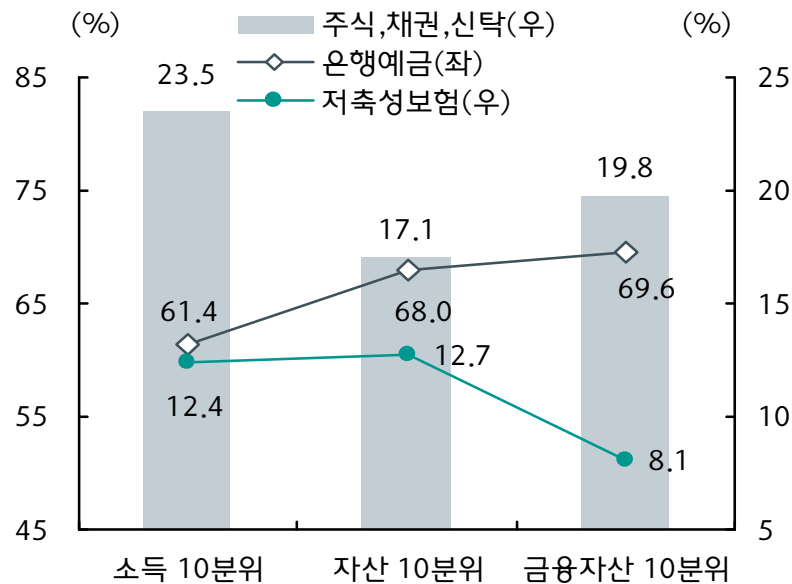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같은 10분위라도 소득/자산/금융자산별 선호 자산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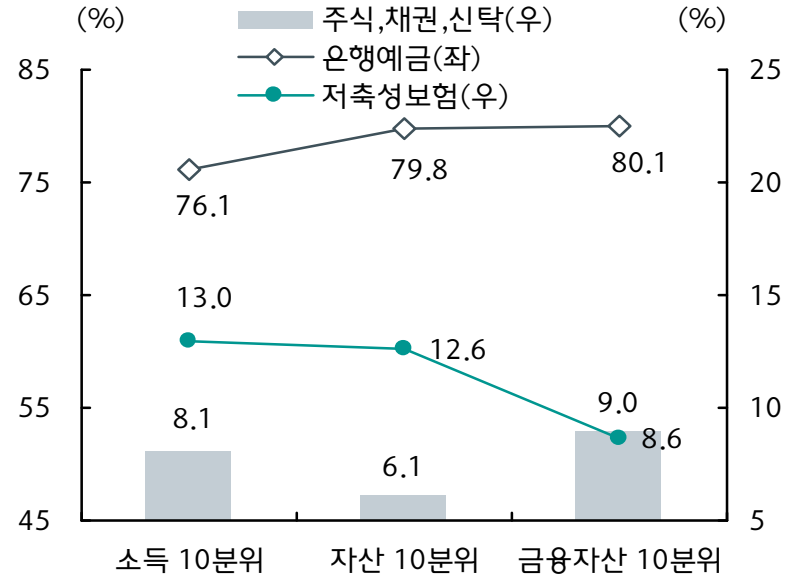
-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도 크고, 금융자산 규모도 커 비슷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가처분소득 10분위와 자산 10분위, 금융자산 10분위가 선호하는 금융자산 간에는 차별화 현상이 뚜렷
- 금융자산 10분위 가구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선호가 낮은 반면, 은행예금과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가처분소득 10분위 가구의 경우 여타 소득 분위 대비 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낮음
- 자산 10분위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식시장 상승기와 2012년 모두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낮고 은행예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자산/금융자산 10분위 금융자산 (20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득/자산/금융자산 10분위 금융자산 (2012)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참고> 재정패널조사 결과

- 주식과 펀드 등 대표적인 투자성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
 - 펀드 보유가구의 비중은 2007년 18.8%에서 2011년에는 9.1%로 50% 이상 감소
-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율이 정점에 도달했었던 2007년말의 국내 가계의 시장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
 - '10년 기준 유로지역 15개 국가 가계의 평균적인 참여율은 주식시장 11.3%, 펀드시장 10.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 주식 및 펀드시장에 대한 가계의 시장 참여율이 높은 곳은 미국과 호주 등 연금시장이 성숙하고 자본시장의 하부구조가 튼튼한 일부 국가에 제한(FRB(2012), ICI(2013), ASX(2012), Christelis et al.(2010))

자산별 보유가구 비중 : 참여율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융자산	71.0	75.1	76.4	79.2	80.1
은행 예적금	63.6	66.6	68.2	74.0	71.8
채권	0.5	0.4	0.6	0.5	0.5
주식	10.4	10.2	9.7	9.2	7.6
펀드	18.8	17.6	14.0	12.1	9.1
기타금융자산	30.8	42.0	45.9	45.3	42.6
부동산	66.1	66.9	65.6	67.0	67.1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유로존 15개국 가계의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율

(단위 : %)

	주식	펀드		주식	펀드
슬로바키아	0.8	2.7	스페인	10.4	5.6
그리스	2.7	1.2	독일	10.6	16.9
포르투갈	4.4	2.8	말타	13.4	8.0
이탈리아	4.6	6.3	프랑스	14.7	10.7
오스트리아	5.3	10.0	벨기에	14.7	17.6
슬로베니아	10.0	12.0	핀란드	22.2	27.4
룩셈부르크	10.0	19.0	사이프러스	34.6	1.0
네덜란드	10.4	17.7			

주 : 민간연금을 통한 시장 참여자는 제외. 주식시장 참여자는 직접투자자만 포함
 자료 : ECB, 자본시장연구원

<#>

<참고> 재정패널조사 결과

-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전체 가구 대비 평균 4~6년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식 보유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펀드 보유가구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평균 연간소득이 펀드를 보유한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그 격차는 2011년에 크게 감소
- 주식 및 펀드를 투자하는 가계의 연도별 평균 보유비중은 각각 33%, 26% 내외로 금융위기 전후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노동패널 및 자금순환표 분석 상에 나타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이 주식과 펀드 등의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 → 시장 잔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미미했던 것으로 추정

주식 보유가구의 금융자산 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구주 평균 연령	44.5	45.1	45.9	47.6	47.5
연간소득	6,074	6,076	6,50	6,715	7,541
금융자산	8,988	8,732	10,339	11,534	12,610
예적금	3,205	3,185	3,673	4,618	4,869
채권	40.0	46.0	53.5	186.5	196.2
주식	3,077	2,752	3,441	3,886	4,173
펀드	1,185	1,236	1,128	1,048	1,159
기타 금융자산	1,481	1,514	2,043	1,796	2,212
개별 금융자산의 비중					
예적금	35.7	36.5	35.5	40.0	38.6
채권	0.4	0.5	0.5	1.6	1.6
주식	34.2	31.5	33.3	33.7	33.1
펀드	13.2	14.1	10.9	9.1	9.2
기타 금융자산	16.5	17.3	19.8	15.6	17.5

펀드 보유가구의 금융자산 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구주 평균 연령	44.7	43.7	44.2	45.8	46.6
연간소득	5,493	5,621	5,981	6,395	7,334
금융자산	6,315	6,360	7,733	7,892	10,651
예적금	2,644	2,760	3,085	3,584	4,531
채권	23.5	21.9	57.2	52.4	124.1
주식	856	675	999	941	1,440
펀드	1,749	1,731	1,998	2,006.8	2,673.8
기타 금융자산	1,042.8	1,172.5	1,594.5	1,308.1	1,882.1
개별 금융자산의 비중					
예적금	41.9	43.4	39.9	45.4	42.5
채권	0.4	0.3	0.7	0.7	1.2
주식	13.6	10.6	12.9	11.9	13.5
펀드	27.7	27.2	25.8	25.4	25.1
기타 금융자산	16.5	18.4	20.6	16.6	17.7

<참고> 재정패널조사 결과

- 전체가구를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 한 후, 각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 수의 전체가구 대비 비중을 계산
 - 대부분의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가 두 종류 이하, 2007년에 86.9%, 2011년에는 91.5%가 세 종류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 한편 2011년에는 가구의 보유 금융자산 다양성이 2007년 대비 오히려 감소
- 우측 패널은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각 가계 그룹들의 개별 금융자산 참여율을 제시
 - 2007년의 경우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가 한 가지인 가구는 전체의 39.7%, 1991가구로 동 가구들 중 은행 예적금과 펀드보유 가구의 비중은 각각 85.2% 와 3.1%
 -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가 두 가지인 가구들은 주식과 펀드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상승하는 편이지만, '11년 참여율은 7.8% 및 10.9%로 '07년 14.9% 및 35.5%에 비해 크게 하락 : 금융위기 이후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 감소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에 따른 금융자산 참여율

(단위 : 가구, 세, 명, 만원, %)

전체가구의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 분포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별 해당가구의 개별 금융자산 참여율									
보유자산 종류 수	해당 가구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은행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기타 금융자산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2007	2011
0	1456	954	29.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1991	2217	39.7	46.4	85.2	85.4	0.1	0.0	1.6	1.0	3.1	0.7	10.0	12.9
2	910	1199	18.2	25.1	90.4	84.8	0.7	0.3	14.9	7.8	35.5	10.9	58.5	86.2
3	484	317	9.7	6.6	95.0	96.5	1.9	1.9	37.2	4.7	80.2	62.1	85.7	90.2
4	169	90	3.4	1.0	100.0	100.0	1.2	11.1	99.4	95.6	99.4	96.7	100.0	96.7
5	4	5	0.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좌측 패널은 전체가구의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 분포를 정리. 전체가구를 보유자산 종류 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해당 가구 수가 전체가구 대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
 2) 우측 패널은 보유 금융자산 종류 수를 기준으로 가구를 그룹화한 후 각 그룹에 속하는 해당가구들의 개별금융자산 참여율을 의미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III. 노동패널 개관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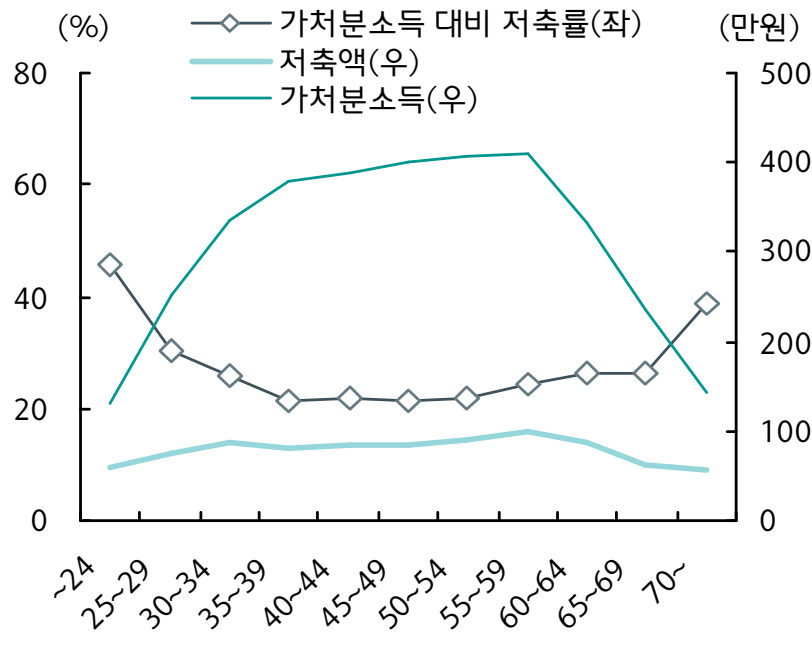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

월평균 저축액은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50대 후반이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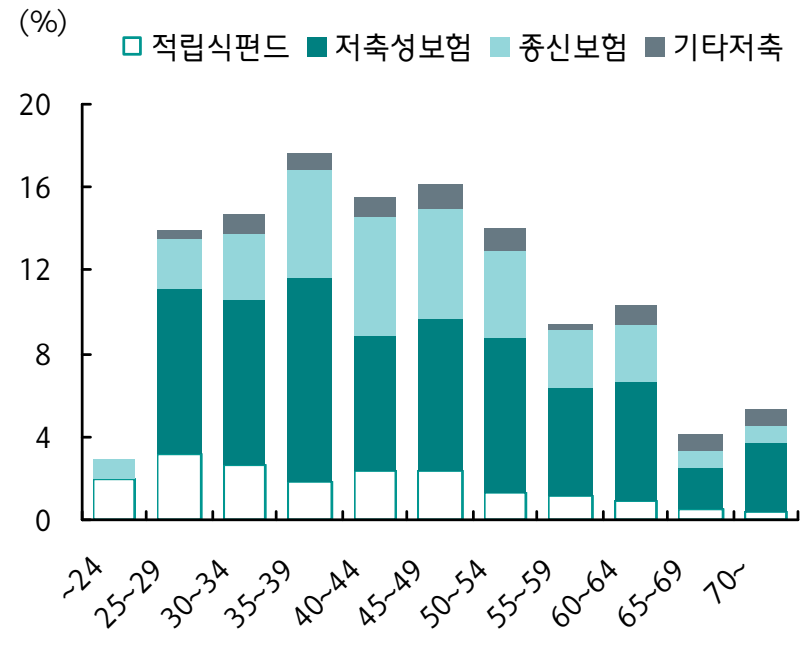
- 가계의 연령별 저축액 점검시, 가계의 여유자산이 높은 50대 후반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 전환
 -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타 연령층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가 주택을 마련한 가구가 많고 자녀 교육비 또한 감소해 여유 자산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비중은 가처분소득이 낮은 20대와 70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음
- 전연령대에 걸쳐 가계 저축중 예금과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모두 80%를 상회하며,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 가계 저축 중 보험에 대한 높은 비중은 금융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연령별 저축액과 가처분소득(2012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예금,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저축구성(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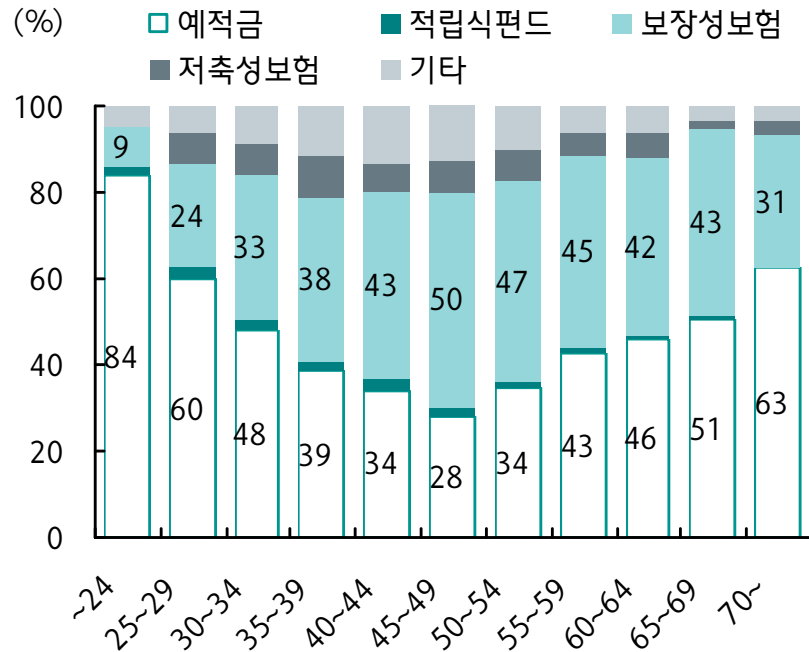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 저축 중 예·적금과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8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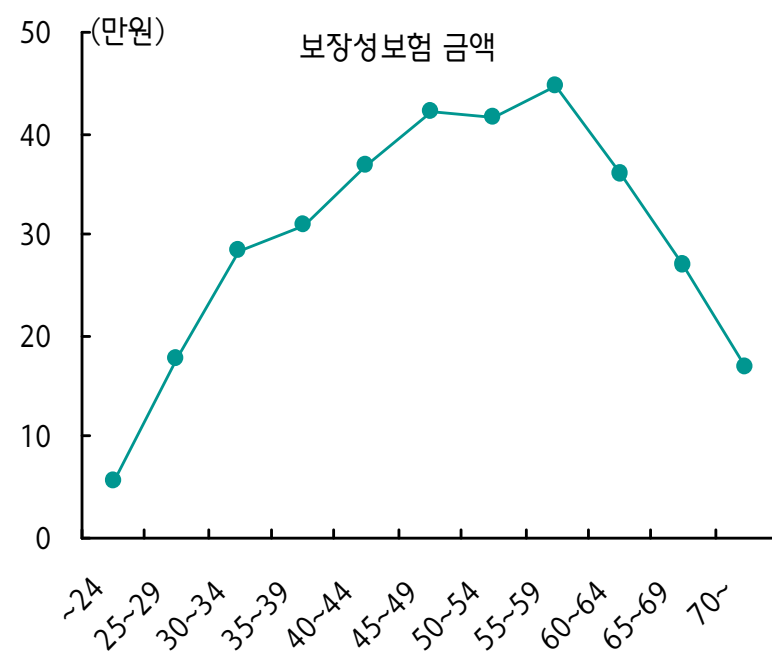
- 가계의 월별 저축액은 보장성보험과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며, 부양가족원이 많은 40대 후반의 경우 보장성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장성보험 중 일부 원금 상환형 고려시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자산의 비중은 앞선 조사보다 클 것으로 유추
- 한편 연령별 보장성보험 금액 추이 점검시,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60대 이후부터 보험을 추가로 납입하기보다 상환 받고, 자녀들도 분가하면서 부양가족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연령별 저축액 구성 비중(2012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령별 보장성보험 납입 금액(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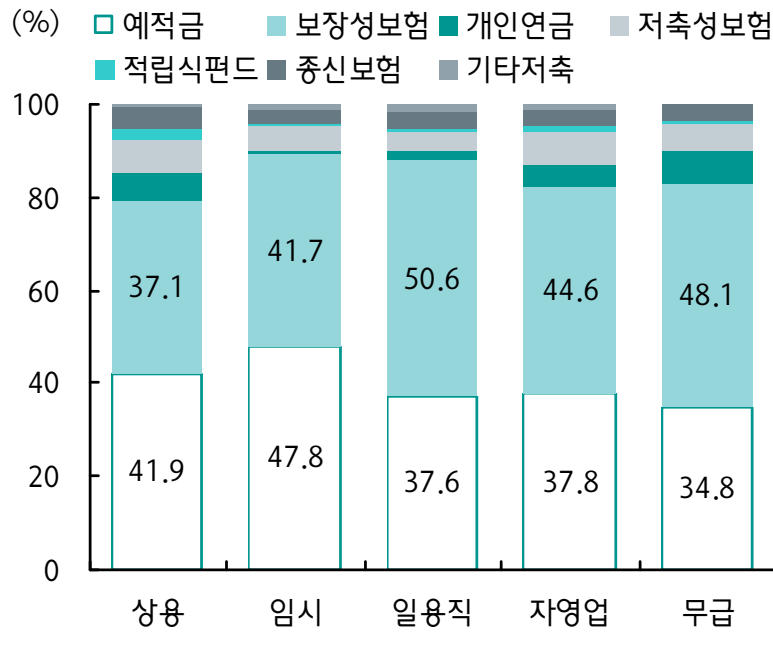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보장성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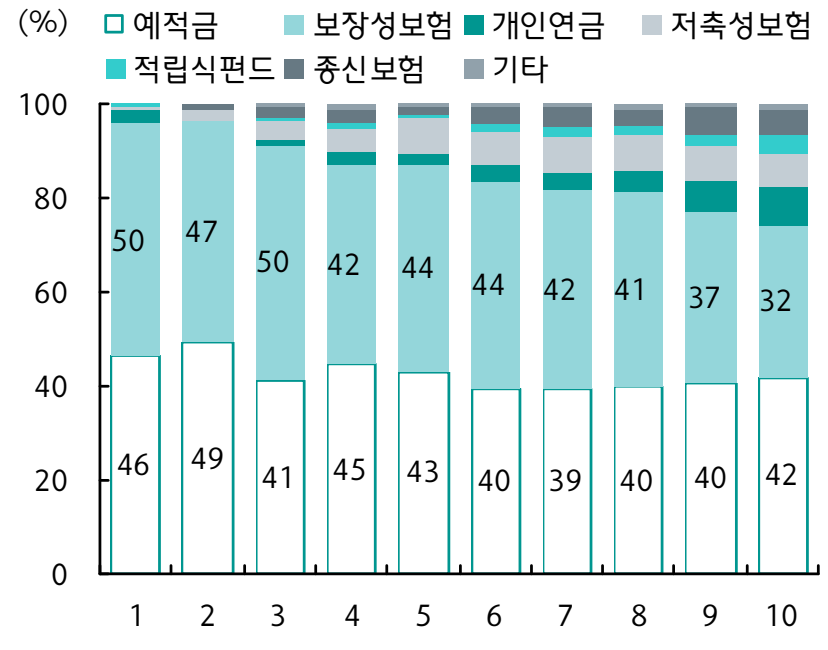
- 저축여력이 적을수록 보장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예적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저축에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큰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장성 보험 비중이 감소하고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 기타 저축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 저축액 비교시에도 보장성 보험 비중은 소득이 불확실한 일용직과 무급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득이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수단의 저축과 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종별 저축액 비중(2012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득분위별 저축액 비중(2012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위기 이후 연령대별 금융상품 선호가 더욱 뚜렷해짐

- 가계의 저축 성향 추이, 과거에는 보장성보험과 예적금 다음으로 종신보험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전연령대 모두 종신보험 비중을 감소하는 추세. 한편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양가족이 가장 많은 40대와 50대 가구가 월저축액에서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주가 상승기에는 전 연령대에서 적립식 펀드 비중이 상승했으나 주가 급락 이후 비중이 급감
 - 20~30대는 적립식펀드에서 예적금으로, 40대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투자하는 등 세대별 차이가 존재
- 40대의 저축 수단이 가장 다양한 반면, 유동성 선호가 가장 큰 20대와 70대의 예적금 비중은 2012년 60%를 상회

연령대별 저축원천별 비중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예적금	44.2	43.0	54.1	59.9	62.1	63.8	50대	예적금	26.8	26.1	33.9	33.9	34.6	38.2
	개인연금	2.8	2.4	2.4	3.3	3.5	3.0		개인연금	3.8	2.8	4.1	3.7	4.2	4.0
	보장성보험	27.0	27.4	24.7	25.3	23.9	21.1		보장성보험	52.3	54.3	45.7	47.9	48.0	45.8
	저축성보험	7.9	4.9	5.0	3.8	5.0	6.6		저축성보험	2.9	4.0	5.1	6.0	5.4	6.4
	적립식펀드	4.8	13.1	6.1	3.6	2.6	2.9		적립식펀드	3.3	5.2	3.5	2.2	2.2	1.3
	종신보험	12.3	7.4	5.8	3.4	1.9	2.1		종신보험	9.1	6.1	5.8	5.0	4.8	3.6
	기타저축	1.0	1.9	1.8	0.8	1.1	0.4		기타저축	1.8	1.4	2.0	1.3	0.8	0.7
30대	예적금	27.8	28.9	35.6	37.3	38.3	42.8	60대	예적금	33.4	39.4	45.6	49.5	46.7	47.8
	개인연금	4.4	4.4	3.9	4.1	4.6	4.9		개인연금	2.2	2.4	1.9	2.0	2.3	2.2
	보장성보험	39.5	38.7	37.5	38.5	40.2	35.9		보장성보험	49.8	44.6	40.0	39.0	40.9	42.1
	저축성보험	6.4	6.2	7.3	7.6	7.9	8.9		저축성보험	2.0	3.6	4.4	4.1	4.5	4.2
	적립식펀드	4.9	11.8	6.7	4.4	3.7	2.2		적립식펀드	4.1	3.7	2.1	1.7	1.2	0.7
	종신보험	15.2	8.5	7.9	7.0	4.9	4.3		종신보험	5.2	3.4	3.2	2.5	3.7	2.0
	기타저축	1.8	1.5	1.1	1.0	0.4	0.9		기타저축	3.3	2.9	2.7	1.2	0.8	0.9
40대	예적금	21.5	22.6	28.8	28.4	27.5	31.5	70대	예적금	47.5	46.9	62.3	58.7	58.5	62.6
	개인연금	5.1	5.0	4.6	5.8	6.1	6.8		개인연금	2.0	0.6	0.9	0.9	1.9	1.4
	보장성보험	50.2	49.7	45.5	48.1	49.3	46.0		보장성보험	37.9	39.5	27.2	33.4	32.1	30.6
	저축성보험	5.0	4.8	7.9	6.4	7.4	6.9		저축성보험	2.2	4.5	4.6	4.0	3.5	3.3
	적립식펀드	4.1	8.2	4.1	3.7	3.6	2.4		적립식펀드	3.7	3.1	1.9	0.4	2.0	0.4
	종신보험	11.4	7.8	7.1	6.7	5.1	5.5		종신보험	4.2	3.5	1.7	1.1	0.7	0.8
	기타저축	2.8	2.0	2.0	0.8	1.0	1.0		기타저축	2.5	2.1	1.4	1.6	1.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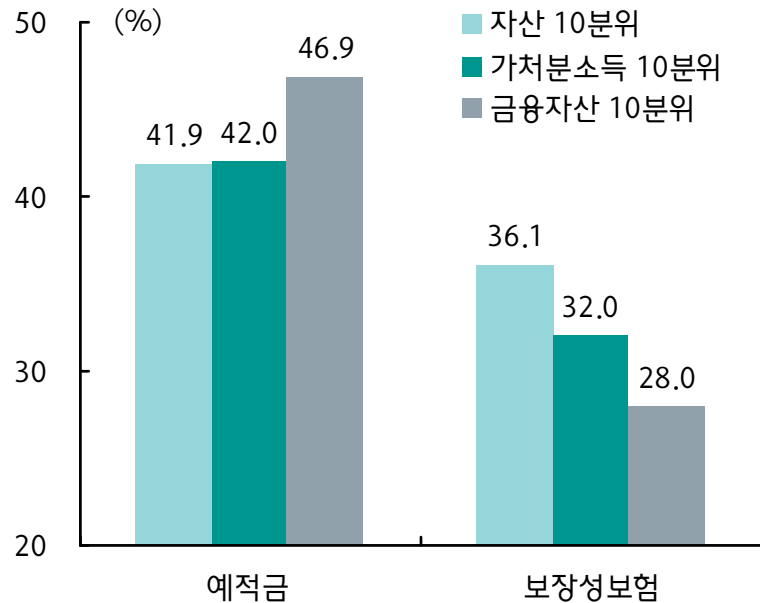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산/소득/금융자산 상위계층 선호 금융상품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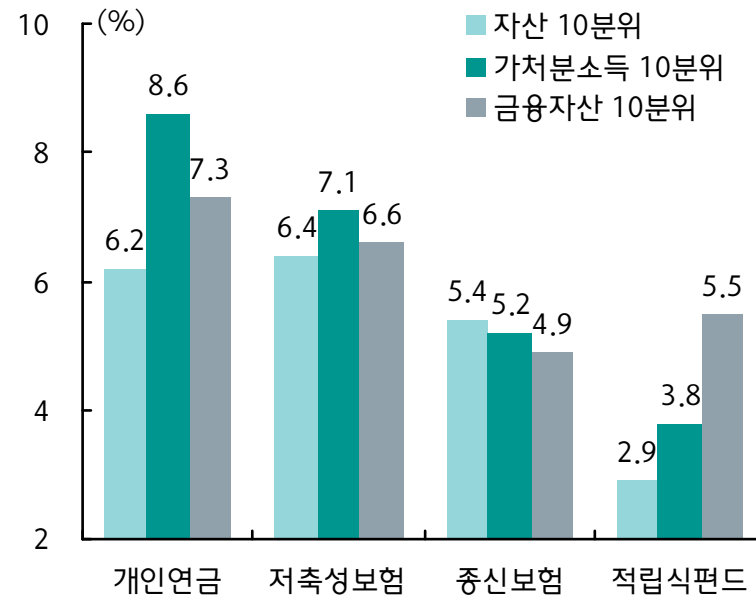
- 동일한 10분위라도 자산 10분위, 소득 10분위, 금융자산 10분위내 가계의 금융상품별 월별 저축액 비중은 크게 차별화 되는 모습
 - 이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 상위층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종신보험과 같은 미래 위험에 대비한 상품 선호가 큰 반면, 적립식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낮음
 - 여유 유동성이 가장 많은 금융자산 10분위의 경우 보험에 대한 선호가 낮은 반면, 적립식펀드와 예적금 비중이 높음
- 가처분소득 10분위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가장 다양하게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자산/소득/금융자산 10분위 저축원천별 비중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소득/금융자산 10분위 저축원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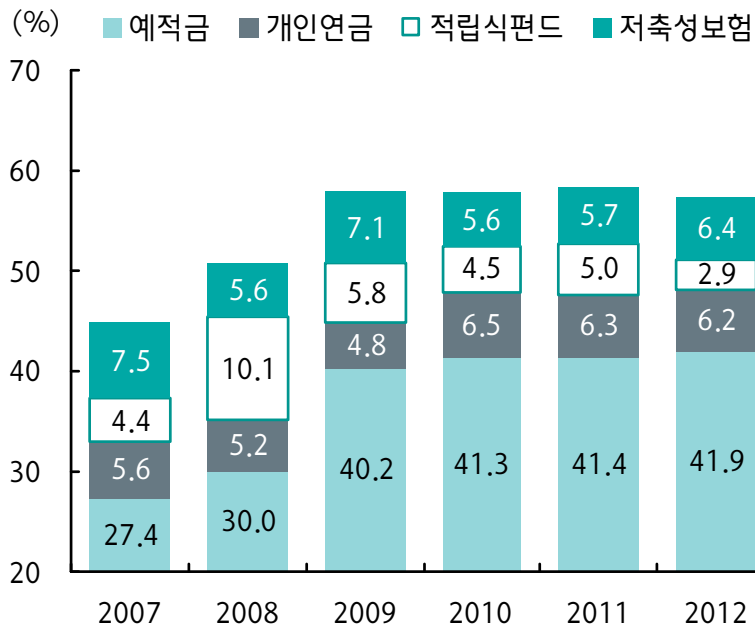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산 상위층, 저축과 더불어 상속·증여 목적의 보험 선호가 높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산 상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상위층과 금융자산 상위층보다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
 - 이는 실물자산 위주의 자산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제약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절세효과 등을 고려해 상속 증여 등의 수요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
-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 수요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펀드 등 투자형상품으로 일부 이동한 데 이어,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적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전 대비 전체 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 자산상위 10분위의 연령별 저축 성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종신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저축성보험과 적립식펀드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산 10분위 종신/보장성보험 외 저축액



자산 상위계층 연령별 저축원천 비중(2012)

(단위 : %)

		30대	40대	50대	60대
8분위	예적금	38.2	34.4	36.8	46.3
	개인연금	3.6	8.3	5.8	1.3
	보장성보험	35.7	41.9	40.9	42.7
	저축성보험	11.4	6.1	8.5	7.1
	적립식펀드	4.9	3.5	1.8	0.0
	종신보험	5.7	5.1	5.7	2.3
9분위	예적금	42.1	34.6	37.4	53.7
	개인연금	11.0	8.6	5.5	2.4
	보장성보험	32.3	37.5	46.0	35.6
	저축성보험	7.9	9.7	5.5	3.4
	적립식펀드	2.6	3.5	1.6	2.1
	종신보험	3.5	5.6	3.9	2.0
10분위	예적금	39.7	33.0	42.5	48.7
	개인연금	6.2	11.3	6.6	2.4
	보장성보험	34.0	34.9	35.3	39.8
	저축성보험	7.3	6.0	7.6	4.3
	적립식펀드	5.7	5.1	1.8	1.1
	종신보험	6.1	8.7	5.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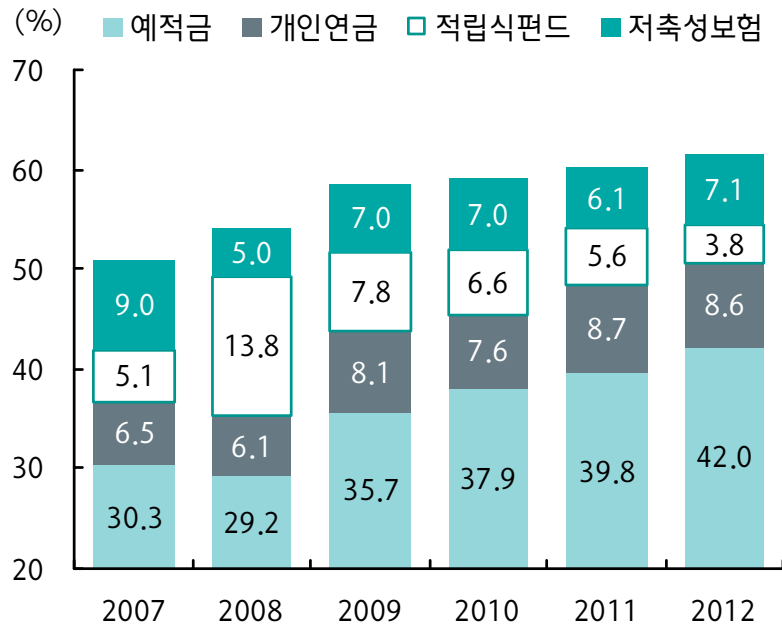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득 상위층, 자산/금융자산 상위층 대비 투자상품 다변화

- 소득 상위층의 경우 자산 상위층과 금융자산 상위층에 비해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득 상위층이 자산/금융자산 상위층보다 평균 연령대가 낮아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
 - ※ 가처분소득 10분위에서 5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나, 금융자산 10분의 경우 동 비중은 약 33%, 자산 10분위의 경우 동 비중은 약 27%에 불과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적립식펀드에서 유출된 자금은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 은행예금으로 다양하게 유입

소득 10분위 종신/보장성보험 외 저축액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득 상위계층 연령별 저축원천 비중(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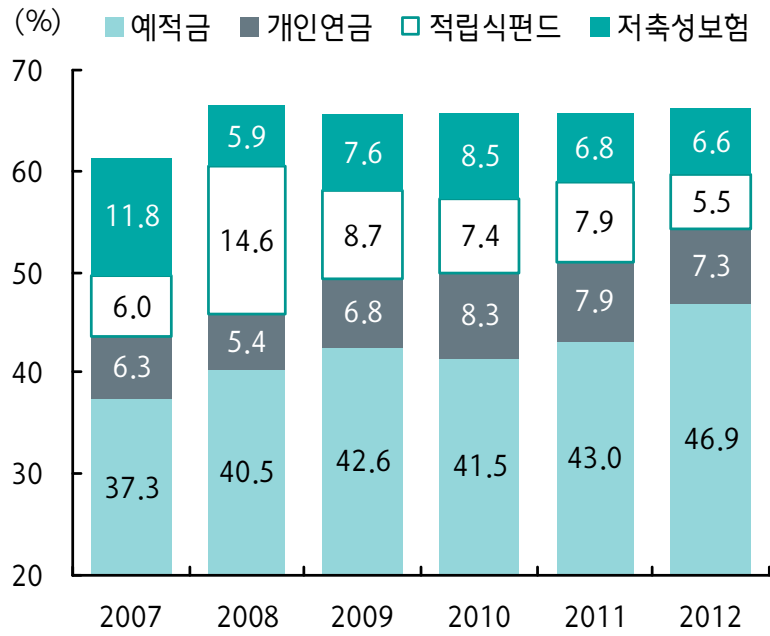
		30대	40대	50대	60대
8분위	예적금	42.4	31.4	37.9	56.8
	개인연금	5.1	7.6	2.7	1.8
	보장성보험	33.2	46.1	47.9	35.4
	저축성보험	11.3	4.5	7.8	3.3
	적립식펀드	2.5	3.2	0.4	0.0
	종신보험	4.8	6.1	2.3	0.1
9분위	예적금	41.6	32.6	44.5	45.8
	개인연금	7.9	9.2	3.8	3.5
	보장성보험	31.5	38.7	37.8	40.0
	저축성보험	10.2	9.5	6.0	3.9
	적립식펀드	2.9	2.0	1.8	1.7
	종신보험	4.9	6.9	6.2	3.5
10분위	예적금	44.0	33.3	43.2	56.4
	개인연금	10.0	11.7	6.8	4.5
	보장성보험	27.0	33.3	35.2	27.0
	저축성보험	8.7	7.5	5.9	6.9
	적립식펀드	4.9	5.4	2.5	2.1
	종신보험	4.6	7.2	5.0	1.6

<#>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상위층, 보험선호가 낮고 예적금과 펀드 선호가 높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상위층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예적금과 적립식펀드에 대한 선호가 높고, 보험에 대한 선호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장성보험과 종신보험, 개인연금의 비중이 가처분소득 상위층과 자산 상위층에 비해 높는데, 이는 여유자산이 많아 비상시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또한 리스크가 다소 높은 적립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보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금융자산 10분위 종신/보장성보험 외 저축액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상위층 연령별 저축원천 비중(2012)

(단위 : %)

		30대	40대	50대	60대
8분위	예적금	52.1	40.0	48.8	58.3
	개인연금	5.1	9.8	2.3	2.4
	보장성보험	21.9	28.2	37.5	30.0
	저축성보험	10.4	12.0	6.4	5.3
	적립식펀드	5.5	2.6	1.1	0.0
9분위	종신보험	3.2	6.8	2.4	1.4
	예적금	52.0	37.0	49.9	52.1
	개인연금	7.2	7.3	6.5	5.6
	보장성보험	23.2	28.5	28.5	37.6
	저축성보험	8.7	14.1	8.4	2.6
10분위	적립식펀드	3.6	4.5	2.2	0.4
	종신보험	3.3	8.0	3.1	1.7
	예적금	49.5	36.9	44.2	55.0
	개인연금	7.8	11.1	8.7	2.5
	보장성보험	18.3	26.6	30.0	31.6
10분위	저축성보험	9.5	8.0	6.6	4.4
	적립식펀드	8.8	10.2	3.7	2.7
	종신보험	3.1	6.4	6.6	3.5

<#> 자료 : 한국노동패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동패널 분석 주요 결과 요약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 국내 가계의 부동산 선호와 거주비용(자가마련 및 전월세 보증금) 제약으로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20%를 하회
- 자산은 60대 초반을 고점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증가한 후 급감하며, 부채는 50대 후반이 고점
- 한편 60대 부채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급증한 반면 50대 부채는 최근들어 급증하는 모습
- 가처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대가 고점이며 정부지원금과 보험금, 연금 등을 포함한 기타소득 비중은 60대부터 급증

세대별 가구의 부채보유성향 차이

- 40대 이하는 실수요 목적으로 50대 이상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 50대 이상 부채 보유 가구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였으며, 이들 세대의 부채 보유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자산 격차는 2000년 중후반부터 더욱 심화
- 40대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상환능력이 클수록 부채를 보유하고, 가처분소득으로 동시에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자가마련과 자녀 교육비 등 주로 실수요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계 자산/금융자산 양극화

- 자산 양극화 현상, 2008년 정점 이후 자산 10분위의 부동산 규모 감소와 더불어 다소 완화
- 가계 금융자산의 상위 계층 편중 현상은 자산 편중보다 심각해 국내 금융자산의 약 50%를 금융자산 10분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층 가구에서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가계 금융자산에서 은행예금 비중은 전연령 모두 80%를 상회하며 연령별 주식/채권/신탁 비중과 저축성보험 비중은 역 U자 형태
- 금융자산 상위층은 주식/채권/신탁을 중위층은 저축성보험 금융자산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 10분위와 가처분소득 10분위, 금융자산 10분위 모두 선호하는 금융상품 간에 차이가 존재 : 자산 상위층이 가장 보수적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여유자산이 많은 금융자산 상위층의 경우 저축성보험 선호가 낮고 가처분소득 상위 계층은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가계 월평균 저축액은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50대 후반이 정점이며, 예적금과 보장성보험이 비중이 80%를 상회
-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보장성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선호하는 저축상품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가 상승기 전 연령대에서 적립식 펀드 비중이 상승한 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20~30대는 적립식펀드에서 예적금으로, 40대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선호가 이전
- 저축 구성이 가장 다양한 세대는 40대이며, 유동성 선호가 가장 큰 20대와 70대는 주로 예적금 상품을 선호
- 한편 금융자산 상위층은 여유 금융자산이 커 보험상품 수요가 낮은 반면 자산 상위층은 보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

<#>

Contents

- I. 서론
- II.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주요 특징
- III. 노동패널 개관
- IV. 노동패널 분석 결과
 - 1.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와 소득 주요 특징
 - 2. 세대별 가구의 부채 보유 성향 차이
 - 자산 획득 목적의 50대 이상 가구 vs 실수요 목적의 40대 이하 가구
 - 3. 가계 자산/금융자산의 양극화
 - 4. 가계 금융자산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 5. 가계 저축상품 구성 특징
 - 연도별, 연령별, 가처분소득/금융자산/자산 분위별
- V. 시사점**
- VI. 별첨 : 노동패널 기초 통계

시사점

- ❖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노후 대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최근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운영의 중심축으로 정착되었으나 현실적인 대안은 제한적인 상황
 -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인 국내 노년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수
 - 과거 자산축적의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용된 점은 고령층 자산의 실물자산 편중도 심화를
 - 그러나 국내 주택시장 구조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실물자산의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며 금융자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 과거 예적금과 보험 중심의 금융자산 축적 관행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형성이 일부 제한되었던 점은 초저금리 환경하에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
 - 과거 고금리 환경하에서 은행 예적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은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의 훌륭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나, 저금리 환경 고착화와 더불어 금융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감소
 - 특히 90년대 이후 주기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부문의 건전성 악화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은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약정기간 이전 해지시 투자원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 금융상품의 가입은 오히려 자산형성을 저해
 - 또한 가계부문의 체계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진행될 경우,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할 여지 존재

시사점

- ❖ 투자형 상품과 보험·연금에 대한 자산배분 확대와 더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자산 투자수요도 증대
 - 가계부문의 낮은 금융자산 축적도는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
 - 정부가 사적연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금시장이 금융권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OECD 에 따르면(2011) 경제활동인구대비 한국의 개인연금상품 가입률은 12.2% 수준에 그쳐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특히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구조적 저금리기에 접어든 채권시장 등 대체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 위험관리에 기반한 해외투자 상품 선호 증대 예상

- ❖ 한편 정부는 장기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제고와 더불어 가계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금융부문의 낙후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개인의 노후대비 대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 존재
 - 특히, 장기투자 확대에 맞추어 국채 장기물과 물가연동채의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이 요구
 - 국내 가계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세제상의 불균형(불합리한 세율 및 과표 기준, 각종 감세혜택 등)이 지속되면서 조세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 부동산 관련 금융시스템 부진 등 금융부문의 낙후성도 실물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측면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의 필요성
 - 가계부문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자산운용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역모기지 등 다양한 장기 상품 활성화를 통한 대출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 존재

시사점

- ❖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험 및 연금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할 필요
 - 연금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여
 - 미국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세제혜택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간접투자시장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가계의 채권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채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을 통해 세후 수익률을 제고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 미국은 저축채권 및 지방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채권투자는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

- ❖ 금융기관은 자산관리 업무의 확대 및 선진화,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각화 전략 모색
 - 간접투자상품의 수요 증가로 고객의 소득, 연령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기관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될 전망
 -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저축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통합서비스와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 필요
 - 동시에 IT 기술혁신, 소비자의 능동적 금융행태로의 이행 등으로 저비용의 비대면채널 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과의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시사점

- ❖ 금융자산과 소득의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령별, 소득계층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고령화 진전으로 노후대비 및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종합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리스크 기피성향, 금융지식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가를 통한 금융자산 관리 및 위탁수요 증가에 대비
 - 근로자 간 소득격차 확대, 고소득자 연령저하 현상 등으로 금융수요자 계층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자본축적 상위 계층에 대한 고급 금융서비스에 주력할 필요
 - 특히 자산 보유 10분위, 가처분소득 10분위, 금융자산 보유 10분위로 대표되는 그룹의 선호 금융상품간에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필요성 부각
 - 한편, 금융자산을 통한 은퇴세대의 중여 및 상속으로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가속화되며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

- ❖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성 존재
 - 부유층(HNW) 시장의 확대와 고령화로 전문화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할 고급인력 확보가 요구되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 구성 인력은 보조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육성 및 보완이 필요
 - 또한 고객들의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투자실적과 평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가치 변동성 관리, 운용성과 track record 축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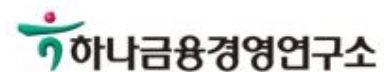
- ❖ 자금흐름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성장성과 수익성도 차별화되는 점 고려시, 금융권내 교차판매 및 협업을 통한 채널 확보의 중요성 부각
 -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은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둔화와 저금리 환경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자금유입도 둔화
 - 증권업은 경쟁심화로 위탁거래수수료율 하락과 더불어 투자심리 위축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펀드시장 또한 정부규제 강화 및 펀드슈퍼마켓 도입 등에 따른 판매 수수료율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 시중자금흐름의 변화가 후행적으로 금융업권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중자금 유치를 위한 금융산업내 채널 경쟁력 확보가 필수
 - 특히 금융산업내 교차판매 및 이업종간의 협업 등을 통한 채널 확보 여부는 향후 개별 금융사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이용 행태의 구조변화를 고려해, 신성장 동력 확충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추진할 필요
 - 저성장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예금 등 전통적인 은행상품의 메리트는 감소하는 반면 증권사의 중위험 . 중수익 상품 및 고령화 대비 연금 . 보험 상품의 메리트 부각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에 따른 절세수요 증대로 투자 및 연금형 상품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 수준 고려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및 자산성장 모델의 유효성은 점차 약화
 - 가계부채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기업부문 또한 일부 대기업 제외시 경영실적 악화 등 양극화 현상 뚜렷
 -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영업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등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 긴요

참고자료

- 김완중·강전은·이승준, 국내 가계자산 구성 현황 및 향후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
- 김완중·김수정,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
- 김완중·김수정, 금융상품간 자금이동과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
- 김재철·남재우·장지혜, 가계의 주식 및 펀드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4
- 오승연,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4
- 이경진·주윤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시사점,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14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각 년호
-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2014

감사합니다



김 완 중 연구위원, wjkim@hanafn.com, 2002-2662

김 수 정 연 구 원, sjkim1771@hanafn.com, 2002-2371

<#>